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1일차)

공청회

일시: 2013. 8. 20. (火) 14:00~18:00

장소: 연세대학교 새천년관 1층 대강당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속기사 이찬웅, 정예진

○ 마이클 커비

서울에서 공청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전쟁 이후, 1939년에서 1945년에 종료된 전쟁 이후 국제사회는 힘을 모아서 UN헌장을 도입했습니다. UN헌장은 UN의 필요로서 보편적인 인권을 지지했습니다. 이후에 세계인권선언과 여러 협약들과 국제법을 통해서 UN은 국가의 존엄성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보편적인 인권이 유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명하였습니다. 그래서 UN이 이 정신에 입각해서 이번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인권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UN은 UN위원회를 창설하였고 그리고 UN인권이사회를 창설했습니다. UN인권이사회가 올해 2월에 창립이 되어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별보고관 마르주끼 다루즈만 씨께서 함께 앉아계십니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창립해야 된다는 권고안을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다

루즈만 씨와 다루즈만 씨 이전에 비탄 문타본 박사님께서 특별보좌관으로 계셨는데 두 분의 사명감을 담은 것이 바로 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창립하게 된 배경입니다. 2013년 일반권고 22호를 만들었고 이것에 의해서 오늘 이처럼 서울에서 공청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UN헌장에 입각해서 세계인권선언과 인권협약과 다른 국제법의 정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N인권이사회의 대표로 인해서 특별보좌관들이 임명되었습니다. UN인권이사회가 결의안을 도입해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립했고 그리고 UN인권이사회의 대표가 제 왼쪽에 앉아 있는 소냐 비세르코 씨, 세르비아에서 온 인권운동가죠. 이분과 저를 책임자로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해두겠는데요, 이 특별보고관의 권고안은 별첨부록 S1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UN인권이사회 부록은 S2로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안들은 각각 S3로 표기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지명된

직후에, 그리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직후에 제네바에 있는 회원 국가들에게 서면을 전달했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에 대한 서면을 전달하였고 제가 서명을 한 서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게도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되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 서면을 통해서 저희는 제네바에 있는 북한대표부에게 창설 사실을 알렸고, 그리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북한대표부로부터의 회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바로 북한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저는 다시 북한대표부에게 서면을 통해서 북한당국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알렸고,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알렸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공청회에도 참석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이후 저희가 다시 회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북한은 여전히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제일비서에게 제가 다시 서면을 보내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참여해야 된다는 내용을 전달하였고 이것이 2009년에 전달했던 내용입니다. 북한이 UN헌장을 존중하고 세계인권을 존중하는 의미에

서 참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전했고 또한 세계인권협약을 비준해야 된다는 내용을 전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7월에 다시 서면을 통해서 제네바에 있는 북한대표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 내용은, 북한이 이 서울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옵서버들을 파견할 수 있다는 초청이 내용이었어요. 또한 저희가 대한민국의 정부와 협력을 해서 이 북한이 대표단을 파견한다면 그에 적절한 예우를 대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에 S3로 저희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북한당국 간에 오간 모든 서면과 공문들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북한은 참여하지 못했지만 저희의 책무는 여러분과, 또한 북한의 적법한 절차를 받아야 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였고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고된 인권유린에 대한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UN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립한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된 인권유린 사례들을 모아서 저희는 모든 책임을 다해서, 그리고 UN인권이사회에 저희가 다짐한 바와 같이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투명성을 가지고, 존엄성을 가지고 또한 저희가 UN의 이상을 지지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와 더불어 이처럼 공청회를 열리도록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공청회는 향후 며칠간 지속될 것이고 또한 그 결론은 분석을 통해서 보고서에 결과가 담길 것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2014년 3월 UN인권이사회에 보고가 될 것입니다. 3월에 보고서 기한이기 때문에 번역기라든지 다른 보고서 작성 절차가 2013년 말까지 완료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한이 상당히 짧기는 하지만 저희가 저희의 사명감을 다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일정대로 진행을 해서 UN인권이사회뿐만 아니라 UN총회의에 전달이 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2014년 3월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그동안의 모든 업데이트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9월 작업을 계속 진행해서 올해 10월에 총회의에 그 보고서 진행상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처럼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공청회를 열게 되었고 이제 첫 번째 말씀해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사위원회에 도움

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북한인권에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와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질문하기에 앞서서 제가 알기로는 이 조사위원회의 사무국과 이야기를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사무국에서 성명과 관련된 모든 것을 보호해줄 수 있다, 만약에 원하신다면. 그리고 또 저희가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름 등을 저희가 비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기로는 성함이 알려져도 괜찮고 그리고 또 이러한 절차에, 또 여러 가지 문서에 이름이 들어가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는지요.

○ 신동혁

예.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이미 전에 2007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을 때 벌써 2008년 그때 처음 뉴욕에서 북한, 뉴욕에 있는 UN주재 북한대표부를 처음 찾아가서 그때 처음 그 사람들과 처음 만났고 그때 처음 제 편지와 저에 대한 책을 전했습니다. 처음 2008년에 그때 북한사람들과 대면을 했었고 그리고 또

평양을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소식 또 제 친척들에 대한 소식을 알기 위해서 부탁을 해서 이미 전에 북한에서는 저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또 작년 가을에 UN에서 또 저희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것을 북한정치범수용소에서 북한 또 정부가 저희 아버지를 강제 구금해 있다고 하는 그런 판결을 내려주셨고 또 북한정권에 저희 가족들을 석방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라는 긍정적인 판결을 해서 이미 북한에서도 저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또 많은 나라들에서 또 저에 대한 내용이나 북한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숨길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선생님의 이야기가 책을 통해서 이미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블레인 하든이라는 분과 그 책을 같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캠프14로부터의 탈출’ 제목이 이런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 신동혁

예, 맞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하든’ 씨와 함께 쓴 책이 이것이 맞는지요.

○ 신동혁

예, 맞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이 책에서 하신 말씀들이 다 맞는 것이지요. 정확한 것이지요.

○ 신동혁

예. 거의 저는 100% 정확하게 그렇게 서술이 돼 있고 오히려 저에 대한 스토리 때문에 많은 나라들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지금 현재 정치범수용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일들에 비해서는 저한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스토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굉장히 끔찍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렇다면 저희가 이 책을 활용해서 오늘 하시는 말씀들을 추가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덧붙여도 괜찮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만약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

해서 말씀하실 시간이 없으시다면, 그런데 그 부분이 이미 책에 써 있다면 책 내용을 제가 대신 써도 되는 것이지요.

○ 신동혁

제가 답변을 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합니다.

○ 마이클 커비

그렇다면 생일이 어떻게 되시죠.

○ 신동혁

1982년 12월 19일입니다.

○ 마이클 커비

어디서 태어나셨지요.

○ 신동혁

‘평안남도 개천시 외동리 국가보위부 14호 수용소’ 정확한 명칭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나중에 그 관리소, 어떤 그 캠프 사진 보여주신 거 맞죠.

○ 신동혁

예, 그렇습니다.

○ 마이클 커비

왜 아기였을 때도 수용소에 계셨죠.

○ 신동혁

아, 원래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왜 수용소에 계셨죠. 이해하시는 대로, 알고 계신 대로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신동혁

어머니가 수용소에 들어간 내용, 자세한 내용은 정확히 모릅니다. 제 어머니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듣기로는 아버지 가족들, 아버지 친척들이나 아버지 가족들이 전쟁 때 뭐 아버지의 형들이 남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수용소로 들어가게 됐다. 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렇다면 그 수용소에서 탈출하기 전에 수용소에서 나와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신동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어렸을 때 수용소에 계실 때 어떤 기억들이 있으신지 그 기억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신동혁

아... 기억들은 뭐 한 5살 정도 그때부터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5살 때 기억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확실한 것은 5살 때 제일 처음으로 나는 기억이, 영문도 모르고 제 엄마랑 같이 어떠한 장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에 모여 있었고 또 군대들이 어떠한 사람을 끌고 나와서 나무기둥에 묶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때까지는 저는 그게 뭔지 모르고 아무 영문 없이 그걸 지켜보게 되었고 총소리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져서 공포에 떨었던 모습을 가장 처음에 떠오르게 됐고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게 5살 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6살 때 수용소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 때문에 학교를 만들었지만 6살 때 처음 수용소 학교에 들어가서 수용소에서 지켜야 하

는 10가지 법이나 그 정도 공부를 시키면서 수용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가르쳐줬고 글 쓰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5살 때 보신 장면은 나중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게 뭐였는지 지금 아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무 같은 데 끌려갔고 총소리를 들으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요.

○ 신동혁

사실 수용소에는 1년에 2번씩 꼭꼭 공개처형이라는 것을 합니다.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죄수들을 항상 긴장시키고 또 죄수들에게 무서움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공개처형이었습니다. 많은 죄수들 앞에서 어떠한 죄수를 말뚝에 묶고 공개처형을 시키는 겁니다. 총으로 쏘서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수형이라고 밧줄에 묶어서 죽이는 것도 있었고 1년에 2번씩 꼭꼭 공개처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5살 때 처음 그걸 목격했었지요.

○ 마이클 커비

그리고 10대, 그리고 어린이 때 그걸 목격하셨다는 말씀이지요.

○ 신동혁

예.

○ 마이클 커비

왜 어린이가 그 현장에 있었을까요.

○ 신동혁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엄마랑 같이 따라 나갔기 때문에 제가 배운 수용소의 규정에 아이들을 공개처형을 한다, 아니면 아이들이 공개처형을 봐야 된다, 그런 내용은 없었지만 그때 아무 생각없이 엄마를 따라 나갔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다른 아이들도 현장에 있었나요.

○ 신동혁

그 당시에는 저 외에 다른 아이들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할 수 없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수용소 학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어떤 학교였고 무엇을 배웠고

다른 어린이들도 함께 있었는지요.

○ 신동혁

제가 봤을 때는 적은 인원의 아이들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6살 때 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제일 처음 먼저 가르쳐주는 게 수용소에서 지켜야 하는 10가지 법과 규정을 가르쳐줬고 그리고 저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글 쓰는 법과 셈 세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수용소에서 농사짓는 일이라든지 석탄 캐는 일이라든지 이런 할 일들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계속 그 일을 하는 것을 계속 다니면서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제가 살던 수용소에서는 아직도 그 안에서 저처럼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있을 때도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형편이 그렇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선생께서 배운 수학이 얼마나 수학을 배웠나요. 어디까지 배웠나요. 예를 들면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도 배웠나요.

○ 신동혁

곱하기, 나누기는 지금도 잘 들어본 적은 없고 지금도 듣기가 힘들고요. 더하기, 뺄기, 그것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셈 셀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걸 배웠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북조선 언어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웠나요. 국어를 어떻게 배웠나요. 책이 있었나요.

○ 신동혁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은 없었습니다. 간수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간수가 어떠한 책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런 칠판이나 이런 데다가 글을 써 주면 저희는 따라서 하는 정도였고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책이라면 수용소 안에서도 종이나 책을 만들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받았고 연필 한 자루씩 받아서 그걸로 받아쓰기 하였고 그 정도였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주는 밥은 어땠나요.

○ 신동혁

6살 때부터 11살까지는 어머니랑 같

이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갔다가 저녁 때 들어올 때 그날그날의 식량을 타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루라도 일을 못하거나 아니면 맡겨진 일을 잘 못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해당되는 식량까지 엄마가 다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 엄마가 일을 잘 못했으면 3분의 1로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절반으로 줄어든다든지 이런 처벌을 받아서 그렇게 됐었고, 또 만약 제가 학교에서 수용소법과 규정을 잘 외우거나 쓰지 못해서 벌을 받았을 경우에도 통보를 해서 식량을 자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11살까지는 그렇게 엄마랑 살았고 12살부터는 따로 또 엄마랑 갈라져서 살아야 되고 그때부터는 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밥을 줬고, 하지만 저희들이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은 수용소에서 정해주는 음식이었습니다. 뭐 학생들이 경우에는 한 300g, 400g이라고 해서 숟가락으로 뜨면 3~4숟가락 정도의 이런 옥수수로 만든 음식이었고요. 그 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면 풀을 뜯어먹는다든지 아니면 땅바닥에 흘려진 음식을 주워 먹는다든지 그것도 간수들의 눈치를 보면서, 아니면 좀 일 잘하는 죄수는 간수에게 직접 “내가 땅바

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어먹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승인하면 주워 먹을 수도 있었고 그 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쥐가 나타났을 경우에 그것도 간수한테 보고를 해서 쥐를 잡아먹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승인을 해주면 그렇게 잡아먹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먹었던 음식은 1년 12달 그렇게 옥수수로 만든 음식에 소금에 절인 배추, 그것이 우리한테 차려지는 전부였습니다.

○ 마이클 커비

12살~16살까지 살았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2살 이전에는 무엇을 드셨나요.

○ 신동혁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12살 이전이나 12살 후에나 똑같은 음식이었고 물론 수용소 안에서는 다른 동물도 키웠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동물도 키웠고 또 쌀을 심어서 농사를 지었지만 수용소가 규정한 10가지 범하고 규정에 죄수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없다. 만약 먹었을 경우에 즉시 총살을 한다는 그런 문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생각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 마이클 커비

음식 양이 충분했나요. 아니면 배가 고프셨나요. 어떠셨어요.

○ 신동혁

충분하다고 느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항상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하면 일을 더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신고를 더 많이 해서 간수한테 다른 사람의 밥을 뺏어먹을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저희들은 항상 음식이 부족하고 항상 배고프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런데 한 번 그때 쌀을 누군가 어떤 여자 아이 주머니에서 발견이 된 적이 있었지요. 그런 적이 있었나요.

○ 신동혁

예. 그게 7살 때인가 제 기억에는 그렇게 됐고요. 그 여자아이가 학교로 오면서 밀밭을 지나오다가 밀밭 옆에 떨어져 있는 밀 이삭 5개를 주워서 왔는데 수용소 안에서는 일주일에 한 2번이나 3번 정도씩 인위적으로 어떠한 죄수 어린이를 선택을 해서 몸을 검사할 때

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훔치고 다니는지 아니면 이상한 것을 감추고 다니는지. 그런데 그날 어떻게 그 여자아이가 걸리게 되었는데 그 여자애 주머니에서 나온 밀을 가지고 간수가 “이거 어디서 주웠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는 자기가 오다가 길에서 주웠다고 그렇게 답을 했는데 그때 지시봉이라고 있는 나무봉이 있는데 그걸로, 자기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너는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머리를 계속 때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자아이가 까무러쳤고 간수가 엄마한테 데려다주라고 해서 저희가 업고 데려다줬는데 그 다음날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죽었다는 통보를 받았습시다.

○ 마이클 커비

이 여자아이가 몇 살이었나요.

○ 신동혁

제 기억으로는 7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동갑이었나요.

○ 신동혁

예.

○ 마이클 커비

그런데 엄마하고, 그러니까 16살 넘고 헤어진 것인가요. 아니면 어머니와 다시 만난 것인가요. 그러니까 그 수용소 내에서 어머니하고 사시는 과정, 순서가 만약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 신동혁

엄마하고 몇 살까지 살아야 되고 몇 살부터 갈라져야 된다는 그거 규정된 이런 뭐 문서로 돼 있는 규정은 전혀 배우거나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제 기억으로는 태어나서 11살까지는 엄마랑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12살부터 갈라져서 살아야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학교로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살았고 집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일을 잘하고 생활을 잘했을 때 경우에 한 번씩 집에 보내주고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왜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든지 그런 생각은 전혀 못해봤고, 제가 태어날 때부터 계속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았

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그동안 아버지는 만나실 수 있었나요. 알고 계시기로는 아버님도 같은 곳에 계셨나요. 보신 적이 있었나요.

○ 신동혁

예. 12살 때까지는 아버지도 따로 갈라져서 살았기 때문에 한 달에 1번 들어올 때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그래서 드물게 한 번씩 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자주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살 이후에 갈라져서 살기 시작하면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었고 저도 일 잘하고 표창 많이 받고 그런 일은 잘 못했었기 때문에 집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잘 많지는 않았습시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아까 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엄마가 계신 곳을 집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건가요.

○ 신동혁

엄마랑 같이 잤었고 거기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

는 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그 집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곳이었지요.

○ 신동혁

콘크리트로 돼 있는 건물이었고 방한 칸짜리 그런 방이었고 물론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공간은 따로 밖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바닥도 콘크리트였고 사면이 다 콘크리트였습니다. 그리고 창문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석탄으로 불을 때고 방을 덥히고 했었는데 겨울인 경우에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찬바람이 많이 들어왔었고 이제 굉장히 춥게 생활했던 그런 기억들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어떤 옷을 입었나요.

○ 신동혁

죄수들한테 주는 죄수복이 따로 있습니다. 여름인 경우에는 얇은 옷을 공급해주고 그런데 이제 여름인 경우에는 2벌 정도를 공급해주고 그걸 번갈아 입게 되고 하지만 잘 입어서 한 달 정도

후부터는 다 해지고 다 그렇게 찢어지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겨울에는 겨울죄수복이라고 하나 주지만 입고 한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 안에 있는 솜들이 다 한쪽으로 밀리고 그런 옷들이었고 그런데 죄수복들은 다 똑같은 색이었습니다. 회색이었는데 벽 비슷한 색깔이었는데 예.

○ 마이클 커비

아버님과의 관계는 좋으셨는지요.

○ 신동혁

아... 뭐 사실 좋다, 나쁘다 그렇게 느껴보고 살았던 적은 없습니다. 도망칠 때까지도 나하고 아버지 관계가 어떻게 내가 자식으로서 아버지한테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표현해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탈출하기 전날 제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만나 뵈지만 제가 아버지한테 내가 내일 도망친다, 아니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수용소를 탈출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니까 탈출하기 바로 전에 아버지를 보셨다는 것이지요.

○ 신동혁

예.

○ 마이클 커비

탈출하셨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죠.

○ 신동혁

25살 되는 해였습니다. 2005년 1월 2일 날 수용소를 탈출했기 때문에 한국 나이로 계산을 하면 25살 되는 해, 24살에 도망쳤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그때 어머니는 생존해 계시는 상태였나요.

○ 신동혁

아닙니다. 형도 있었지만 저희 어머니하고 형은 1996년 11월 27일 날 수용소에서 죽었고 제가 도망칠 때는 아버지나 아버지 친척들이 아직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어머니와 형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상황을 설명해주세요.

○ 신동혁

'96년 4월 6일에, 원래 4월 5일 날 저녁에 제가 집을 한번 시간 받아서 집을 한번 갔었습니다. 갔는데 형도 이제 시간 받고 저녁 때 집에 와서, 제가 방안에 있었는지 엄마하고 형하고 부엌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기에 그걸 듣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 느낌으로는 엄마하고 형이 탈출을 하는 그런 얘기로 들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어디로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 생각은 엄마하고 형이 탈출하려고 한다는 이런 생각을 먼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되었고, 밖에 소변을 보러 간다고 거짓 말치고 그때 바로 학교로 뛰어가서 제 담당선생님한테 그걸 신고를 하였습니다. "엄마하고 형이 산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신고하러 왔다." 그래서 그 다음 날 4월 6일 날 아침에 8시에, 그날 밤 학교에서 자고 아침 8시에 일하러 나갈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간수들이 와서 저를 잡아가게 되었고 그때 엄마

하고 형이 탈출하는 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떠한 계획을 세웠었냐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고문을 당했었고 6개월 후에 11월 29일 날 많은 정치범 죄수들이 모인 앞에서 이제, 물론 저랑 제 아버지랑 보는 앞에서 엄마하고 형이 공개처형 당했었습니다. 형이 공개처형으로 죽었고 엄마는 이제 교수형으로 저랑 아버지랑 보는 앞에서 죽었죠.

○ 마이클 커비

그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신동혁

후에, 제가 이제 처음에 신고를 했고 엄마랑 형이랑. 원래 누가 잘못하고 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한 것은 이제 전부 빼놓지 말고 의무적으로 모든 죄수들은 가서 간수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수용소의 정해진 규정이고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엄마하고 형하고 한 얘기를 간수한테 가서 신고를 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때 당시 제 나이로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자기 가족을 신고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그

것은 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사실 그때 제가 제 담당선생한테 가서 신고하기 전에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내가 이 엄마하고 형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로 한국말로는 누룽지라고 하는 그걸 좀 배블리 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배블리 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간수는 그렇게 해준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그러고 나서 저는 그날 집에 안 들어가고 학교에서 잠을 잤고 그날 아침에 간수들이 저를 끌고 가기에 갔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수용소 안에 또 다른 감옥이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몰랐었는데 제가 들어갔던 게 이제 어린 나이에든 그 게 감옥이라고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 들어가서 한 이틀 만에 제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거꾸로 매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숯불로 된 그런 풍구를 돌려서 숯불을 피워서 제 등을 지지게 되었고 갈고리로 꿰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한 2~3일 정도를 그렇게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움직이지 못하

까 그 다음에는 감방에 생활하게 해줬고, 날짜는 정확히 세지 못했지만 대략 6개월 정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마이클 커비

선생이 생각하시기에 왜 고문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목적이 무엇이었지요.

○ 신동혁

글쎄 저는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저를 고문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저는 죄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할 수 있었다고만 생각을,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마이클 커비

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신동혁

저는 태어날 때부터 죄수였고 늙어 죽을 때까지 죄수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됐었고 또 죄수라고 하게 되면 수용소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키는 것만 해야 됐었고 주는 음식만 먹어야 됐었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곳도 없었고 그냥 우

리가 할 수 있었던 건 오직 간수들이 시키는 일만, 또 때리면 매 맞고 밥을 안 주면 굶고, 이런 것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 마이클 커비

어린 소년으로서 선생님은 사실은 그렇게 감옥에 갇힐 정도의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왜 죄책감을 느끼셨나요.

○ 신동혁

지금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제가 수용소 살았던 모든 것을 부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죄를 짓지 않아도 제 눈에 보였던 모든 것은 죄수복을 입고 다니는 죄수하고 총을 차고 다니는 간수만 전부가 보였고요. 그리고 총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태어난 사람들이고 나처럼 죄수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 죄수의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죄수로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냥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다입니다. 특별히 누가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너는 저렇게 살아야 되고 너희 부모들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늙어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 마이클 커비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나 어린이들이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비밀을 지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선생님은 왜 그렇지 않았나요.

○ 신동혁

사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다른 우리 정치범수용소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수용소 안에서 살 동안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냥 표현으로 그냥 엄마, 이런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을 뿐이고 그냥 엄마도 나처럼 똑같은 죄수였고 아버지도 나처럼 똑같은 죄수였고 그리고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부모도 부모로서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모나 자식 간의 감정 자체를 저는 느껴보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느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14살이나 15살 때쯤 되었을 때 본인이 아무런 죄를 안 지었는데도 이렇게 수용소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이걸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이걸 정말 맞지가 않아,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요.

○ 신동혁

24년 동안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지금에 와서야 제가 왜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왜 나 같은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또 바꾸려고 여러 가지로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더 어리거나 더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비슷한 나이의 선생님처럼 그냥 수용소에 머무는 아이들이 있었나요.

○ 신동혁

예. 저보다 나이 훨씬 어린 사람들도

있었고 저보다 나이 많아서, 17살까지 학교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나가서 다른 여러 가지 일하는 데로 다 보내져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지금도 계속 그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관리소14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치수용소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신동혁

물론 간수한테도 들었고 저희가 알고 있는 공식 명칭은 평안남도 개천시 외동리 국가보위부 14호 관리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북한에서는 수용소라는 표현을 안 쓰고 수용소라는 표현은 학교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정치범수용소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본인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떤 정치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관리소에 있게 되었는데

지,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있었나요.

○ 신동혁

확실하지 않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머니 아버님도 어린 나이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략 1965년 그때 처음으로 그 수용소에 잡혀 들어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아마 어머니 아버지가 10대나 열 몇 살 정도의 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부모님께서서는 수용소, 뭐 관리소에서 나가고 싶다는 말씀을 혹시 선생님께 하신 적이 있나요.

○ 신동혁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관리소의 규칙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어요. 학교에 다닐 때 수용소나 뭐 관리소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었다고 배웠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규칙들이 있었는지 기억하는가요.

○ 신동혁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기억할 수 있는 건 10가지로 된 법이 있습니다. 내용의 첫 제목은 ‘수용소에서 배워야 되는 10가지 법과 규정’ 이렇게 명시돼 있고 가장 첫 번째 문구가 ‘수용소에서 탈출할 수 없다.’ 그리고 첫 번째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3~4가지씩 들어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수용소에서 탈출하면 즉시 총살한다. 탈출을 기도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자는 즉시 총살한다. 또 누가 탈출하거나 그러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사람들이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간수 등이 있었나요. 어머니께서는 산인가요, 언덕을 통해서 탈출할 거라고 계획을 세우셨다고 그러셨는데 만약 탈출하려고 어떻게 관리소14를 탈출해야 되죠. 탈출하는 게 어려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 신동혁

지금 말씀드리는데 거지만 그때 제가 14살 때였고 어머니하고 형이 부엌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산으로 올

라가서 탈출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로 엄마하고 형이 탈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엄마하고 형이 죽게 된 것도 제 실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금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수용소 안에서 살면서 사실 우리가 몸 부리는 공간만 놓고 보면 저희들 앞에는 철조망이나 여러 가지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는 그 밖으로 산등성이를 따라서 전기철조망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지뢰도 있다고 그랬고 함정도 파냈다고 그랬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들어 놨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법규정의 가장 첫 번째 문구가 '탈출할 수 없다, 탈출하면 즉시 총살한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탈출할 생각 자체를, 저도 24살 되면서 까지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군대들은 다 철조망을 지키고 있고 수용소 내부에 한 2~3군데 정도 군대들이 집단적으로 머무르면서 죄수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감시를 하고 통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일 시킬 때는 간수들이 일을 시키고 그런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탈출을 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봉제 기계를 고치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 신동혁

예. 그 2003년도인가 그렇게, 제가 미싱을 받쳐놓는 틀을 제 등으로 지고 공장 2층으로 올라가다가 떨어뜨리면서 파손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벌로 손가락을 잘렸습니다. 수용소에 규정된 법과 규정에 관리소의 기물을 함부로 파손할 수 없고 만약 파손했을 경우에 즉시 총살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때 그 수용소 재산을 파손시키므로 해서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것은 간수가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행히 공개처형당하지 않고 오히려 팔 하나나 다리 하나가 잘릴 수도 있었는데 손가락 하나 잘렸다는 것에 대해서 그때는 굉장히 간수한테 감사히 생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 마이클 커비

어떻게 손가락이 절단되었나요. 그 기계에 찍혔나요. 아니면 어떻게 절단이 되었지요.

○ 신동혁

간수가 내가 미싱테이블을 파손시켰다고 그러니까 자기 방으로 불러서 왜 미싱테이블을 파손시켰냐고 해서 지고 올라가다가 손에 힘이 딸리면서 놓쳐버렸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너 손을 잘리면서 손이 더 힘이 생기지 않겠나 그러면서 작업반장 보고, 원래 제가 그 당시 듣기로는 손을 자르라는 소리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그 상황에서는 뭐 당장 간수가 총을 꺼내서 나를 쏘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사람 시켜서 때리라고 시킬 수 있었지만 그때 작업반장한테 칼로 손을 자르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고 그런데 작업반장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손가락 하나가 그렇게 잘리게 되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손가락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 신동혁

예.

○ 마이클 커비

오른쪽 손 중지에 맨 위쪽이 없는데 맞습니까.

○ 신동혁

예.

○ 마이클 커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작업반장에 의해서 절단된 것이 맞습니까.

○ 신동혁

예.

○ 마이클 커비

기계를 파손해야 되겠다는 의도가 있었습니까.

○ 신동혁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미싱테이블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미싱테이블은 쇳물을 부어서 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무거웠고 그걸 혼자서 등으로 지고 올라가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저는 별로 힘센 축도 아니고 힘 약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때 정말 손에 힘이 없어서, 떨어지면서

그렇게 손이 미끄러져서 떨어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런 조치가 취해졌을 때 그런 조치에 반해서 청원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히 요청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수용소를 총괄하는 어떤 높은 분한테, 아니면 어떤 법원이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있어서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 상황이었나요.

○ 신동혁

그런 거 전혀 몰랐고 간수가 작업반장한테 내 손을 자르라고 명령을 할 때 저는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랬지만 끝내 그게, 제가 무릎 꿇고 빈 것이 먹히지 않았고, 사실 저는 손목이 잘리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손가락이 잘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 당시는 너무 고맙게, 간수를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을 했었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그 관리소 내 젊은 여성들, 그러니까 관리소14의 젊은 여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성관계가 허락이 됐었나요.

○ 신동혁

관리소 규정된 10대 법과 규정에 함부로 여자와 신체적으로 접촉할 수도 없고 작업하고 관련되지 않은 사적인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리고 함부로 여자를 호실로, 방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자와 신체적으로 접촉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단독으로 마주서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잘 없었고, 하지만 물론 여자나 남자나 똑같은 죄수인데도 사실 여자들의 상황이 더 열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여자라고 해서 일을 조금 주는 것도 아니고 남자와 똑같은 일을 받게 되고 그것을 못했을 경우에 남자들만큼 오히려 더 심하게 고통을 당할 수가 있고 또 사실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불량합니다. 사실이 한국 사회라고 표현을 하자면 제가 일반 편의점에 슈퍼마켓에 가도, 아무데나 가도 여자들의 생리대는 다 비치된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 내가 수용소 살 때 여자들 생리할 때쯤 되면 바지 사이로 피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되었고요. 그렇다

고 해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그 여자들이 앉아있다 일어난 자리에도 피가 흥건하게 묻어있었고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었고 또 같은 죄수들인데도 남자 죄수들한테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매를 맞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렇게 험한 꼴 당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임신한 여성도 있었나요.

○ 신동혁

눈으로 확인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일하게 한다면 일을 열심히 잘하면 수용소에서 그런 표창으로 죄수들한테 주는 포상으로 표창 결혼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그것도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올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수가 말 한마디로 일을 잘해서 표창으로 결혼을 시켜준다, 앞으로 일을 더 열심히 잘해라. 이 한마디를 가지고 그렇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짝을 지어주고 그렇다고 해서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따로 갈라져서 살게 하다가 일 열심히 잘하면 한번씩 만나러 가게 해주고 그 정도로 그

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부부들이 누릴 수 있는 결혼한 부부로서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 신동혁

이게 혜택에 표현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공장에서 일하던 여자가 표창결혼을 했다면 농장으로 보내주는 게 저는 혜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벌받고 공개처형 당하고 하게 되면 여자나 남자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어머니 아버지인 경우에도 표창결혼 받았지만 전혀 그런 혜택도 없었고 저는 그렇게 뭐 혜택 그런 걸 느껴본 적 없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임신이 권고되었나요. 권고되지 않았나요.

○ 신동혁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 형인 경우에 '74년도에 태어났고 제가 '80년도에 태어났고, 뭐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만들어졌고 제 형이 만들어

졌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고 어찌다 보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생겨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양이 표창결혼하고 많은 사람들이 표창결혼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태어난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 마이클 커비

선생님이 이해하시기도 관리소에서 태어났나요.

○ 신동혁

예. 뭐 태어나서 눈으로 처음 보고 어떠한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보였던 것은 간수하고 죄수 이것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교에 들어가서도 간수가 저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너희들은 정치범 죄수이고 살려준 보답으로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해줬기 당연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간수들과 여성죄수들 간의 관계는 어땠나요. 어떤 관계가 있었나요.

○ 신동혁

사실 눈에 보이는 그런 특별한 관계는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소문에, 조용하게 도는 소문의 경우에는 어떠한 죄수 여자가 간수 방에 청소하러 가다가 임신돼서 없어졌다는 이런 얘기들을 몇 번 들었던 적은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어떤 여성의 경우 선생님과 비슷한 여성이 청소부로 일을 했는데 임신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갑자기 실종을 하였고 돌아오지 못하였는데 바로 그 여성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 신동혁

예. 그때 그 여자가 임신하는 걸 숨기기 위해서 천 같은 걸로 배 나온 걸 가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 마이클 커비

선생님 자신이 그 어떠한 성적인 행위가 가혹행위가 간수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시지는 않았나요.

○ 신동혁

아... 사실 제 어머니 그... 정확히 몇

살 때인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지만 한 9살 때인가 8살 때인가 제 엄마가 농장에서 일을 했었고 엄마가 저녁 때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엄마 찾으러 갔다가 우연히 간수 방을 창문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간수가 제 어머니를 더듬는 모습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후에 거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그때 당시 먹었던 음식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나이가 더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농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식사가 공급이 되었습니까.

○ 신동혁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물론 제가 듣기로는 탄광에서 제일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900g의 공급해주고 농장은 일하는 사람들은 700g의 식량을 공급해주고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밥 양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우리가 들었던 g수대로 나오는 것을 사실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밥을 먹

었을 때 1시간 내로 바로 소화가 돼서 계속 배고픔을 느껴야 됐었고, 사실 죄수들인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길을 걸어 다니면서 머리를 들고 다니는 죄수는 한 명도 없다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땅을 계속 내려다보고 다니면서 혹시라도 무슨 음식이나 아니면 곡식 같은 거 떨어져 있으면 주워 먹기 위해서 계속 땅을 내려다보고 다니다가 그게 버릇이 돼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특별히 뭐 정해진 음식이나 이런 걸 우리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 공급해주고 그런 것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관리소에 있을 당시에 쥐를 얼마나 많이 봤나요.

○ 신동혁

사실 쥐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쥐는 굉장히 많았고 사실 쥐가 나타나면 본능적으로 우리 죄수들은 잡으려고 몸들은 다 반응을 하는데 우선 간수 눈치를 먼저 보게 되고 거기서 제일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간수한테 보고를 합니다. 제가 쥐를 잡아먹을 수 있냐고 하면 간수가 기분에 따라

서 어떤 때는 쥐 잡아먹어도 된다고 승인을 해주고 어떤 때는 잡아먹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만약 잡았을 경우에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지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어떻게 쥐를 먹는지 보기 위해서 간수가 잡은 그 사람한테 자기 앞에서 쥐를 그냥 살아있는 채로 먹어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아있는 쥐를 그냥 그렇게 털까지 다 먹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선생님도 쥐를 잡아먹었나요.

○ 신동혁

저도 물론 많이 먹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만일 산 쥐를 먹지 않았다면 이 쥐를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시설이 있었나요.

○ 신동혁

전혀 그런 건 없었고요. 어떤 때는 간수 몰래 쥐를 잡았을 경우에 바지가 량이 같은 데, 아니면 사타구니에 숨겨서 들어와서 호실에, 아니면 그 호실을 덮히는 불 아궁 같은 데 몰래 숨어서

구워먹을 때도 있는데 그것은 죄수들 눈이 많고 신고 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실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니면 대부분 가죽만, 아니면 털만 벗겨내는 정도로 그냥 생으로 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 마이클 커비

다른 동물도 있었다고 합니다. 관리소에 다른 동물들을 키웠고 먹었다고 하는데 어떤 동물들을 먹었나요.

○ 신동혁

사실 저희 죄수들이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닭도 키웠고 오리도 키웠고 토끼도 키웠고 여러 가지 동물들을 키웠지만 그것은 전부 다 간수들이 먹는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뭐 새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튼 새가 죽어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봤으면 그걸 몰래 우리가 먹는다면 간수한테 신고해서 먹는다면 이런 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고기라면 고기겠죠.

○ 마이클 커비

그러면 몇 살 때 탈출 계획을 세웠

고 왜 탈출계획을 세웠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규칙에 반하는 것인데도 어떻게 탈출계획을 세울 수 있었나요.

○ 신동혁

특별하게 탈출계획을 세운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제가 일하던 미싱공장에 밖에서 잡혀 들어오신 분이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난생처음 수용소 밖 사회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철조망 밖이나 철조망 안이나 다 정치범 죄수복을 입고 다니는 죄수와 충을 차고 다니는 간수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누구도 바깥사회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분을 통해서 난생처음 이제 바깥사회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제가 제일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깥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들었을 때 바깥사람들은 수용소 안에서 죄수들이 먹는 음식 같은 걸 너무나도 자유롭게 먹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단지 그 먹는 거 하나 때문에 탈출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특별한 뭐 계획 같은 건 세우지 못했었고 계획이라고 해봐야 철조망 넘어가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이분을 만나서 처음 바깥 얘기를 듣고

탈출하려고 생각을 하기까지 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탈출해서 뭐 하겠다고 그런 생각 자체를 해 본 적은 없고 그냥 내일 당장 총에 맞아죽든지 전기에 붙어서 죽든지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바깥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배불리 실컷 먹어보고 죽겠다는 그냥 그때 당시에는 이 생각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2일 날 단지 그 생각 하나 때문에 들어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됐었는데 물론 성공을 저는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탈출했던 과정을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 신동혁

2005년 1월 2일 날 제가 일하던 작업반 죄수들이 산에 불을 뿜 화목을 하러 올라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불 뿜 화목은 화목하는 장소가 전기철조망이랑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고 그쪽으로 올라가서 불 뿜 나무를 하다가 마지막에 간수가 마지막으로 나무를 다 지고 내려간다고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때 오늘 아니면 다시 기회가 없을 거라

고 해서 무작정 철조망 있는 데로 달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는 날도 굉장히 어두워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무작정 철조망을 넘었는데, 원래 저한테 처음 바깥사회에 대해서 설명해줬던 분이 저보다 한 발 먼저 철조망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그분의 등을 타고 넘었고 저도 넘으면서 같이 철조망에 두 다리가 다 찢어졌고요. 그러고 나서 그냥 저도 전기 붙으면서 두 다리가 찢어지면서 머리가 한번 캄캄해졌지만 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났을 때 그때 제 느낌은 저랑 같이 나오시는 분이 그냥 기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없이 산 아래로 뛰어 내려갔고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 당시 상황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분은 전기 붙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언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 신동혁

뭐 돌아가셨는지 그때 당시 2005년 1월 2일 날 철조망을 넘으면서 전기에 붙어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간수들한테 다시 붙잡혔는지 그것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도망가셨죠.

○ 신동혁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을 북한사회를 보게 되었고 헤매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특별한 목표도 없었고 방향도 없었고 그냥 그때 당시 제 생각으로는 정치범수용소와 멀리 떨어져야 된다고 해서 계속 걷고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서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운인지 아니면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제가 방향을 잘 못 잡고 남쪽으로 내려왔다면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방향을 잡고 올라간 게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점차 중국에 대한 얘기가 들리게 되었고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중국에는 어떻게 가셨나요.

○ 신동혁

2005년...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대략 2월 2일쯤에 저는 국경을 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탈출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날짜를 굶기도 했었고 굉장히 허기지기도 했었고 또 도둑질을 해서 다른 사람 옷을 갈아입기도 했었고, 2월 2일쯤에 제가 국경에 도착해서, 사실 그 전에 사람들 모여 있는 데 가면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주고받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를 했었고 중국에 가면 어떤 음식을 먹고 돈을 얼마큼 벌 수가 있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귀담아들었고 그때 나도 그냥 내가 정말 잡히지 않고 죽지 않으려면 이런 중국에 한번 넘어가 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경에 도착해서 넘는 장소까지 거의 하루 동안 국경 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걸어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2005년 2월 그때 국경 길을 따라 걸으면서 군대들한테 7번 정도 단속이 되었는데 그때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것인지 신기한지 모르겠지만 7번 단속하면서 모든 군대병사들이 나한테 먼저 담배 없냐 먹을 거 없냐고 이것부터 물어봤습니다.

신분증 보자, 아니면 뭐 어디 가냐 따지고 그런 거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때 주머니에 있던 과자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저도 훑쳐서 가지고 있던 거 꺼내주면서 넘어가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대홍단군 삼장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도착했을 경우에 어린 17살 짜리 병사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병사하고 얘기를 하다가 저도 물어봤습니다. 바로 중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저 중국 쪽으로 넘어갔다 올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병사가 당연히 넘어갔다 와도 된다. 그런데 넘어갔다 올 때 중국 장백산 담배를 좀 사다 달라.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면서 이제 만약에 넘어오다가 잡혔을 때 절대로 자기가 넘겨 보내줬다는 말을 하지 마라. 물론 그 병사가 나한테 넘어갔다가 다시 오겠냐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다시 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물론 저는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오지는 않죠. 그래서 그 병사 보는 앞에서 오름길 따라서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 신동혁

그리고 중국에서 1년 동안 산 속에 숨어서 중국 사람이 돼서 소 키워주는 일을 했습니다. 하다가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 탈북자를 중국에서 잡아가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1년 만에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내려갔습니다.

○ 마이클 커비

선생님은 어떤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나요.

○ 신동혁

사실 무슨 그렇게 계획 세우고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것은 그냥 중국 지도 하나였고 1년 동안 일을 했는데 저한테 주인이 중국돈으로 600원을 줬던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제 계획으로는 중국 광둥성이라고 광주 쪽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남방이 있고 거기서 많은 탈북자들이 그쪽을 통해서 내려가서 일도 많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 목표는 그냥 광주까지 내려가는 거였는데 남경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는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해에 가게 되었습니다. 남은 돈 다 털어서 상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고 상해 도착했던

시간이 2006년 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식당에 일을 할 것을 얻기 위해서 한국식당에 들어가서 사정을 했는데 식당에 와 계시던 한국 분이 제가 북한에서 도망쳤다는 탈북자라는 얘기를 듣고 그분이 도와줘서 상해에 있는 한국영사관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영사관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나요.

○ 신동혁

들어가서 4개월 만에 조사를 받았습니 다. 중국 공안의 조사를 받았고 그러고 나서 2개월 만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저를 받아줬고 중국에서 저에 대한 한국으로 승인을 해줘서 총 6개월 만에 비행기로 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그 기간 내 영사관 내에서 건물 내에서 사셨나요.

○ 신동혁

예. 지하실에서 살았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그 이후 북한에 돌아가실 일

이 있으셨나요. 돌아가신 적이 있나요.

○ **신동혁**

전혀 없습니다.

○ **마이클 커비**

북한에 가고 싶나요.

○ **신동혁**

물론 지금도 굉장히 가고 싶은 곳이 북한, 제가 태어났던 곳입니다. 물론 지금은 정치범수용소이기 때문에 갈 수 없지만 만약 정치범수용소가 아니라면 제일 먼저 가고 싶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저희한테 뭐 보여주시려고, 위성사진인가요. 그 관리소14 사진 가지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신동혁**

여기 계신 분 누구라도 구글어스 들어가면 정치범14호 수용소를 찾아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도움이 되실지 모르지만 제가 간단하게 정치범수용소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그 사진에서 아는 건물이 있나요. 사시는 동안에 있었던 건물이 지금 이 사진에도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실 때 알던 건물이든 장소든 지금 눈에 보이는 곳이 있나요.

○ **신동혁**

예. 사실 몇 년 동안 이 위성사진을 보면서 제가 살았던 곳이나 제가 일했던 곳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봤었고, 물론 영어로 이렇게 해서 표시를 대충,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의 경우에는 수용소에 총 출구가 3개 정도 됩니다. 수용소로 들어가는 출구가요. 제 표현으로 한다면 남쪽 방향에 있는 출구가 되고 산속으로 올라가는 전기철조망이 보이고 여기 위치에 네모난 이 박스가 군대들이 지키는 초소가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오렌지색으로 돼 있는 화살표, 그러니까 왼쪽 아래에 있는 그곳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동혁**

예. 이 하얀 화살표에 위치한 곳이 간수들을 위해서 여기서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여러 가지 동물들을 키우면서 이것은 저희들이 먹을 수 없지만 간수들을 위해서 이렇게 키우는 목장입니다.

○ 마이클 커비

지금 표시하고 있는 데가 이미지 오른쪽에 있는 것, 이것이 공장인가요. 그런데 여기가 돼지 키우고 그런 곳인가요.

○ 신동혁

예.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들을 키우는 곳입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이 동물을 그냥 간수들만 먹기 위해서 키웠나요. 아니면 팔기도 했는가요. 혹시 아시나요.

○ 신동혁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간수들이 먹는 동물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파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돼지나 닭이나 한 번이라도 드셔본 적이 있나요.

○ 신동혁

전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 마이클 커비

그러면 국경일이나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음식 안 주나요.

○ 신동혁

그런 거 없었고요. 2001년에 한 번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그때 단옷날이라고 해서, 5월 달 단옷날이라고 해서 간수들이 다 산골짜기에 가서 염소불고기를 한다면 염소를 잡았을 때, 그때 염소 잡는 개울 옆에 염소 잡고 나서 염소 발톱 이런 걸 잘라서 버렸는데 그걸 주어다가 생으로 뜯어먹었던 적은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보여주신 이 그림 중에서 판리소14라고 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서 아실만 한 장소가 눈에 띄는 게 있나요.

○ 신동혁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간수들이 생활하는 마을이고 또 간수들이 생활하는 마을 주변으로 다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 마이클 커비

마을 주변에 있는 저 빨간 선이 철조망인가요.

○ 신동혁

빨간 선은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 빨간 선을 중심으로 해서 철조망이 쳐 있다고 제가 표시를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요. 철조망이 있는 장소는 지금 보시는 마우스 이 하얀 것을 보시면 여기가 철조망이 있고 여기가 간수들이 지키는 입구가 있고 하얀 이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간수들이 다니는 길이고 도로 밑으로 또 강 옆으로 작은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죄수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유일하게 죄수들이 간수 마을에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때 겨울에 간수들이 화장실이 다 얼어서 볼일을 볼 수 없을 때 그 얼음을 깨내기 위해서 승인받고 간수들이 들어가서 그 작업을 합니다.

○ 마이클 커비

두 번째 보여주신 이미지가 여기에도 공장이 있나요. 첫 번째 보여주신 사진하고 두 번째 보여주신 사진이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 신동혁

이것은 14수용소 전반을 제가 표시를 해놨던 겁니다. 좀 가늘게 표시된 부분이 원래 몇 십 년 전부터 존재했던 14수용소이고 좀 굵게 표시된 부분이 이번에 새로 전기철조망을 쳐서 14수용소랑 연결된 표시인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연구기관들이나 단체들이 새로 확장된 수용소라고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 마이클 커비

얇게 그린 빨간 선이 원래 있던 수용소라는 것이지요.

○ 신동혁

예, 전부 다 전기철조망으로 쳐져 있는 곳입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탈출한 장소 좀 저희한테 짚어주실 수 있나요. 마우스 커서를 가지

고 탈출했던 그 지점에 놔주실 수 있으세요.

○ 신동혁

정확한 장소는 모르지만 그때 제 기억을 더듬어본다면 이 지역에 시멘트 공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 뒤가 겨울 때마다 저희들이 올라가서 화목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한 이 정도 위치에서 도망을 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이 외에도 선생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더 있습니까. 선생님의 경험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질문을 하지 않았거나 조금 더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더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신동혁

지금 잠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빌딩 건물 이 수용소 안에 위치해 있는 빌딩인데 이 경우에는 전기철조망 감시하는 군대들 외에 이런 곳이 한 두 군데 정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군대들이 있으면서 수시로 우리 죄수들 일하는 곳을 다니면서 우리 죄수들을 감시도 하고 통제하고 죄수들한테 못

살게 구는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옆이 제가 14살 때 잡혀 들어가서 고문도 받았고 제 아버지도 물론 여기 고문 받았던 감옥입니다. 이 위치가요. 지금은 잘 볼 수 없지만 겨울에 나와 있는 위성인 경우에는 여기에 콘크리트 벽이 있었고 간수들이 지키는 망루도 확인할 수 있고 또 마우스 쪽에 위치한 곳이 산속으로 터널을 뚫어서 이 안에 터널 안에 감옥을 만들어 놓아서 그렇게 죄수들 관리를 하는 곳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 건물의 용도는 무엇이었나요. 왜 건물을 지었나요.

○ 신동혁

물론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수용소에 살다가, 저는 뭐 엄마랑 형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봤지만 사실 정치범수용소에 잡혀 들어간 죄수들인 경우에는 사실 북한에서도 최악의, 정말 죽어야 될 짐승처럼 공공연하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치범수용소인데도 또 저런 감옥을 만들어서 죄수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저도 의도는 잘 모르겠

습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의도는 이걸 만든 사람이나 알 수 있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끔찍하고 무섭다는 말밖에는 해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마이클 커비

왜 끔찍한 장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 신동혁

사실 그 안에서 살 때는 그런 건 못 느꼈습니다. 그냥 언제든지 매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언제든지 뭐 매 맞고 코가 터져서 코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손가락 잘린다든지 나처럼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불고문 당한다든지 이런 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심지어는 공개처형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경우에는 누가 공개처형당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내가 저 자리에 서서 공개처형당하지 않는 모습에 참 안도하고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생각을 했었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같이 생각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살 때는 물론 짐승이지만, 배가 고프고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이게 우리들

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진짜 아무 생각 없었죠. 짐승이었던 것이죠. 반항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하려고 생각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지금 제가 탈출하고 나서 그 모습을 다시 보게 되고 또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됐었고 왜 북한 독재정권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물론 거기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다시는 내가 손가락 잘리고 싶지도 않고 다시는 불고문 당하고 싶지도 않고 다시는 족쇄에 묶여서 거꾸로 매달렸던 그 상처 자국들이 아직도 내 몸에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끔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저는 한국 사회에 와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것을 볼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국민들 대부분이 자기의 존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의 존엄과 자기의 인권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열심히 투쟁도 하고 많이 노력을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사람들은 그런 걸 할 수가 없

었던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사실 제 개인으로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북한에서 당했던 것, 북한에서 받았던 고통을 사실 북한 독재정권을 통해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냥 보상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저에 대한 사과는 바라지도 않고, 그 이유는 저희가 받았던 상처나 고통은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직 그냥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지금 저처럼 태어났던 아이들, 태어났을 아이들, 그리고 늙어죽을 때까지 인권이라는 말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나처럼 이렇게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살지는 못해도 최소한 그들의 삶이라는 것만 좀 느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도 사람이라고 그냥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할 수 있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한테 보상 안 해줘도 되고 저한테 사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저는 그것만 바라고 있는 거죠.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누려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은 알고 계시나요.

○ 신동혁

지금은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사람은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은 먹어야 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은 가야 되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말하는 게 저는 인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단하고 사소한 것만 놓고 봤을 때 북한정치범수용소는 이런 게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끔찍하다고 표현하고 있고, 또 최소한 북한사람들을, 정치범수용소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그 관리소14에 살고 계실 때 몇 명이 있었나요. 100명이 있었나요. 수천 명이 있었나요. 몇 명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 신동혁

정확히 인원은 저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 제가 생각했을 때 한 2~3만 명 정도의 죄수들이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북한은 독재정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당시 북한에, 그러니까 수용소 사실 때 북한의 정치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북한 정부는 어떻게 어떤 종류의 정치를 하는지 그런 것을 배우셨나요.

○ 신동혁

저희들한테 가르치고 저희들을 옥할 때는 항상 죄수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정치범 죄수들이라는 말을 써서 정치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그 의미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그런 걸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가르쳐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니다. 북한 일반사회,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김정일 사진이나 초상화, 이런 배지들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수용소에서 죄수들이 사는 곳은 그것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북한 노동당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상이라든지 북한 노동당에 대한 그런 것 아무것도 안 배우셨나요.

○ 신동혁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니다. 심지어 제가 TV로 봤을 때 북한은 아무데나 가도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붙어있었고 동상이나 이런 건물들을 많이 지어놨었는데 유일하게 저희 정치범죄수들이 사는 곳에 있는 유일한 구호가 있습니다. 모두 다 법규정과 규율이 이것대로 생활하자고 하는 그 사진이 산 옆에 나무널판지로 만든 구호가 있었고, 그 외에 김일성, 김정일 찬양하는 거라든지 또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라든지 그런 거 붙어있는 것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얘기해주는 것도 없고요. 제가 지금 생각해서 그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희들은 원래 북한의 법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그런 독재정권의 독재자들의 인식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희들은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최소한 목숨은 연장시켜서 일을 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생산물을 빨아내기 위해서 살려둔 것이 아닌가. 그것도 언제든지 이 사람들이 일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오직 일하는 도구로만 생각을 했고 그냥 일하는 소나 아니면 이런 어쩔든 짐승처럼 대했기에 그런 자체를 가르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제 동료들이 다른 질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소나 비르세코

존엄성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동물처럼 살았다고 했고 탈출을 했는데 정신적으로 아직 탈출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존엄성을 다시 찾았다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인간처럼 감정을 느끼면서 살았다고 생각하는가요.

○ 신동혁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육체적으로는 저는 편안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저는 수트를 입고 나왔지만 7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죄수복을 입었거든요. 7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닭이나 돼지나 이런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 했지만 지금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편해졌지만 아직도 정신적으로는 좀 힘들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북한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여러 가지, 내가 겪었던 고통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정치범수용소 상황들이 꿈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또 내가 좀 북한 살고 있는 내 아버지나 내 가족들, 또 내 동료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많은 사람들은 만나서 수용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죄수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보면 계속 이게 수용소에서의 그때 상황들이 트라우마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니까 있습니다. 사실 정신적으로 고통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소나 비르세코

선생님께서서는 이러한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최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나요.

○ 신동혁

최근은 아니지만 한국 도착하고 나서 저는 2개월 반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처음에 병원에 들어갔을 때는 너무 심각해서 한 4일 정도를 폐쇄 병동에, 정말 정신이 없는 사람들 들어가 있는 폐쇄병동까지 들어갔었고 2달 반 동안을 병원에서 물리치료도 받았고 약물치료도 받았고 그리고 2007년 경우에는 저 혼자서 있다가 쓰러져서 3번이나 앰블런스에 실려 가게 되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가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고 제 스스로가 정신적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하지만 좀 어렵기도 합니다.

○ 소냐 비르세코

감사합니다.

○ 마이클 커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서 환영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들긴 들었는데 선생님 경우는 어떠셨죠. 환영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 신동혁

예, 저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

니다. 환대를 못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이런 인권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을 여행할 수 있었고 많은 나라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하지만 그 어떤 나라를 가도 이 대한민국처럼 탈북자에 대한 기존 시스템이 너무나도 잘 돼 있는 나라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캐나다 가 있는 탈북자들이라든지 미국에 가 있는 탈북자들이라든지 영국에 가 있는 탈북자들을 만나 봐도 한국처럼 이렇게 공짜로 대학 보내주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탈북자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도들, 정부 차원에서 많이 그렇게 해주고 있는 나라는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저는 느꼈고요. 하지만 일반 국민적인 그런 인식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글썄요 차별이라고 말하기는 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탈북자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많이 서양이나 이런 미국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관리소14 총책임자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그 책임자들 혹시 기억나는 분들 계시나요.

○ 신동혁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 마이클 커비

아까 간수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군인들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간수하고 군인은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 간수하고 군인은 다른가요. 아니면 같은 것인가요.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 신동혁

간수하고 군인은 사실 어떻게 구별 짓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꼈던 것으로는 군대들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하는 곳을 상관하고 터치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간수들인 경우에는 저희들을 감시하고 저희들을 직접적으로 처벌을 주고 일을 시키고 하는 임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군대들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탈출하는 것을 감시하고 저희들이 어떤 무슨 음모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감시를 하고 그걸 적발해내는 일을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들인 경우에는 굉장히 어린 사람들이었고요.

○ 마이클 커비

그러면 혹시 간수나 군 중에서 관리소14에 있는 동안 친절했던 분 계신가요. 손가락만 자르게 한 간수 말고 친절하게 해주신 사람 없나요.

○ 신동혁

있었습니다. 제가 14살 때 엄마하고 형이 공개처형당하고 나서 감옥에서 나오고 다시 학교로 갔을 때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선생이 이제 학생들을 통해서 왕따를 시키고 계속 때리고 밥을 굶기고 하면서 제가 굉장히 허약해졌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는데 그때 마침 선생이 바뀌면서 간수가 이제 바뀌면서 아이들이 나를 못 때리게 했었고 따로 이제 몰래 나를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누룽지도 좀 먹게 해줬고 그때부터 제가 왕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때 맞는 게 좀 잦아들었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간수한테.

○ 마이클 커비

그러면 그때 식당에서 쥐 아니면 식물 이외에도 어떠한 걸 먹을 수 있었나요. 식당 가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옥수수나 그런 거 말고 다른 것도 있었나요.

○ 신동혁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밖에 돌아다니다가 먹을 수 있는 풀을 뜯어먹는 다든지 그런 것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길바닥에 흘러 있는 곡식을 주워 먹는 것이, 그것도 간수가 승인을 해야지만 주워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마이클 커비

아까 식당으로 데려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식당에서 식사하셨나요. 그 식당은 간수들을 위한 식당에 데려간 것이었나요.

○ 신동혁

아닙니다. 음식도 죄수들이 만들고 있고 간수가 감시를 해서 한 줄로 서서 죄수들이 밥을 받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고. 그렇지만 그것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간수의 기분에 따라서 한 숟가락 먹었는데도 당장 일어나라고 그러면 일어나야 되고 먹던 음식을 놓고 밖으로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 마르주끼 다루즈만

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희 질문에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마 제 동료들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혹한 상황들에 대해서 아주 큰 목소리로 말씀을 해주시는 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증언을 들으면서, 그리고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조사위원회에 있으므로 인해서 꼭 드려야 되는 질문인데요. 저희는 이렇게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앞에 카메라들을 보시는 것처럼 녹화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이지만 인터뷰도 하고 있고 공청회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공청회를 통해서 증언을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초기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신 선생님께서 더 하시지 못한 말씀이 아마 책에 담겨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이 이용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증언을 하시는 동안 서울에서 뿐만 아니라 제네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증언을 하시면서 어떠한 증언에 대한 입증은 요

구한 적이 있었는지요. 선생님의 증언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생님의 처지를 진심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선생님의 개인적인 경험이고 그 경험을 안정적인, 심리적인 상태에서 그동안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랍습니다. 심리적으로 선생님께서 상당히 안정적이신 것으로 보이고 차분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의 증언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의심을 해야 되는 여지가 있습니까. 너무나 이런 질문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보고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신동혁

사실 그런 질문도 여러 번 받았습시다. 어떠한 강연장에서라든지 또 이런 곳에서는 공개적으로 저를 비판하고 제가 하는 얘기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물론 외국사람들도 그

런 사람들도 많았고 물론 한국에서도 있고요. 인터넷 뉴스가 나오면 뉴스 댓글 경우에는 내가 엄마를 잡아먹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내 가족을 잡아먹은 사람이라고 하고 막 그런 댓글도 많이 올라오는 것을 봤었고. 위원님들도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증거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지금,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살았던 스토리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제가 14살 때 족쇄에 묶였던 자국이라든지 불에 탔던 내 몸의 자국이라든지 갈고리 꿰었던 그 자국이 남아있는 게 나한테는 유일한 증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철조망을 넘으면서 찢어졌던 두 다리가 유일한 증거이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게 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뒤늦게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다 끝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내 얘기가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분

명한 것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얘기를 해보고 안 믿으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믿으면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학살을 자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학살이 자행될 그런 사람들에게 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타일러준다든지 해서 최소한 그건 멈춰야 되지 않겠냐, 하는 바람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 마이클 커비

지난 2시간 동안 휴식도 취하지 않고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와서 선생님께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의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 모두 휴식을 취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휴식시간을 갖고 10분간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10분 휴식 후 질의응답 재개)

○ 마르주끼 다루즈만

계속 머리에 걸리는 생각이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닐 거라고 생

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바로, 그러니까 새로 얻은 이해라고 할까요. 관리소, 이런 수용소들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수용소나 관리소에 있는 그 환경이 엄청 나쁘고 또 그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나쁜 것인데, 사실 이게 북한주민들에게, 그러니까 북한주민들을 억압하고 하고 통제하기 위한 틀로써 이런 수용소들이 과연 사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북한주민들은 이런 관리소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북한주민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리소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사람들이 그 캠프를, 그 수용소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일단 들어가면 평생 있게 되는데 과연 이 수용소의 용도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신동혁

저도 한국에 와서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고 있고 물론 제가 거기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만약 제가 탈출하지 못했으면 늙어죽을 때까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계속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나름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연구를 지금 해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한테 드는 생각은 지금 당장 북한사회는 오직 한 사람의 말과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라고 저한테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한테는.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현재 북한의, 저는 독재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최고지도자로서 오직 자기의 말과 자기의 생각을 북한사람들이 모두가 다 따라 주기를 바라고 있고 만약 거기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가차 없이 체포해서 수용소에 가둬 놓는다는 거죠. 김일성 때는 모르겠습니다. 김일성 때는 김정일도 어렸고 김정은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하지만 김정일이 들어오고 지금 현재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가 올라서면서 거의 세계 유례가 찾아볼 수가 없는 3대 세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가장 끔찍한 그런 나라인지 아니면 강패집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회가 돼 버렸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건 뭐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표현대로 한다면 그냥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을 가차 없이 잡아다가 수용소에다가 잡아 넣고 자기 말 듣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어디까지나 자기의 호화로운, 더 방탕한 그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범수용소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 입에서는 그렇게 점잖은 표현이 안 나오거든요. 어디까지나 북한사람들 탄압을 해서 그 사람들 시체나, 그 사람들 피 위에 자기의 그런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밖에는 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굶어죽고 있지만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미사일을 쏘고 있고, 사람들이 굶어죽고 있지만 수억 달러를 들여서 자기 호화로운 보트를 구입하고 있고 그런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무지 어떻게 제가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소냐 비르세코

선생님께서서는 북한의 많은 주민들이 이 수용소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동혁

예. 제가 봤던 많은 우리 북한 탈북 하시 분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누구나 다, 심지어 어린 학생들까지 알고 있는 게 이 정치범수용소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뭐 행동 잘못하고 말을 잘못했을 경우에 무조건 정치범수용소로 간다는 인식이 다 어린이들까지도 퍼져 있다고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수용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지만 그 안에서 어떠한 고통들, 어떠한 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북한사람들 조차도요.

○ 소냐 비르세코

감사합니다.

○ 마이클 커비

어떻게 하면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이 구글 사진들을 손에 넣을 수 있나요. 어떻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이 구글 사진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나요.

○ 신동혁

인터넷에 구글어스를 다운 받아서, 그것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구글어스를 다운 받아서, 물론 모르시는 분인 경우에는 이 14수용소 찾아서 보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 경우에는 자주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쉽게 들어가서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구글어스를 다운 받아서 위성사진을 어느 지역을 보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어떻게 구글에서 어떤 좌표를 가지고 찾았습니까. 만일 선생님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이 수용소의 사진을 보여주면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 수용소 사진을 손에 넣었습니다.

○ 신동혁

손에 넣은 것은 아니고 2007년에 제가 책을 쓰면서 '세상 밖으로 나오다'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한국에서 출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때 북한에 내가 살았던 정치범수용소 위치를 찾으려고 이런 NKDB라고 하는 그 북한인권만 전문조사를 해서

기록하는 그런 NGO가 있는데 그 NGO랑 같이 작업을 해서 이 구글어스를 찾아들어갔고요. 사실 제 혼자 힘으로 혼자서 들어가서 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과 같이 들어가서 찾아서 이제 하나하나 제가 살았던 곳이란 제가 봤던 건물, 제가 일했던 곳을 하나하나 짚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처음 보기 시작했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이 수용소는 혹시 그 주변에 유명한 도시나 그런 것이 수용소 근처에 있나요.

○ 신동혁

아... 북쪽으로는 북창화력발전소라고 하는 그런 큰 화력발전소가 자리 잡고 있고 남쪽으로는 무슨 탄광, 아무튼 어떠한 탄광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 강 건너편으로는 18호 수용소라고 하는 또 수용소가 자리 잡고 있었고 정확하게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라든지 그렇게 오간 대화는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아까 구글어스에서 보여준

장 이름은 뭐죠.

○ 신동혁

대동강이라는 큰 강입니다.

○ 마이클 커비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휴식하는 동안 저희가 충분히 뭐 질문을 못 했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래서 선생님께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하시면 될 거 같은데요.

○ 신동혁

우선 이렇게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주셔서 또 이런 행사장에서 제가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저도 질문을 잘해주셔서 저도 거기에 맞는 대답을 최선을 다해서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이 COI,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인 COI가 저희 탈북자들에게, 북한사람들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이 아닐까 그런 각오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북한사람들이 스스로 들고 일어나서 폭동이나 아니면 리비아, 이집트 시리아처럼 총을 들고 싸우지 못하는

이상에는 이 COI가 저 개인한테 남은 처음이자 마지막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이 COI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만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만큼 그들은 감출 게 너무나도 많다는 거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북한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정치범수용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큼 사람들을 탄압했고 얼마큼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주므로 인해서 자기네들한테 돌아오는 피해가 얼마큼인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저 고통을 자기네들이 어떻게 되든간에 멈추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N이나 국제사회가 저렇게 힘없이 죽어가는 북한정치범수용소 수십만 명의 정치범 죄수들. 또 그렇게 굶어죽고 있는 북한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물론 그들이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COI가 노력한다고 해서 제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고 제 친척들이 그냥 죽을 수도 있고 제 동료들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들의 죽음 앞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노력을 했

다. 저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했다.” 했을 경우에 조금이라도 덜 가슴 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 마이클 커비

신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선생님의 증언을 기록을 하고 COI 내에서 증언을 모두 증언을 보관을 할 것이고 UN 내에 문서로 길이 기록이 되고 UN 인권이사회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보관을 할 것입니다. 이제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 신동혁

감사합니다.

○ 마이클 커비

두 번째 말씀을 해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 좀 준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증언하러 나오신 분을 위해서 물 한잔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 한잔 준비가 되었나요, 물 좀 한잔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상에는 TS005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함이 알려지는 건 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국하고 논의가 됐고 성함은, 본명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탈북자

예, 저는 관참습니다.

○ 마이클 커비

통역 수신기를 계속 착용을 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은데요. 착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천천히 착용을 하시고요.

○ 탈북자

감사합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성함은 사용을 안 하고 나중에 원하신다면 증언 하신 내용을 기록에 성함을 추가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무국 쪽에 얘기를 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함을 저희 기록이나 증언에 남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성함을 저희가 공개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함 공개를 하지 않고 지금 그냥 저희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디서 자라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탈북자

저는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여기로 말하면 초등학교죠. 북한의 인민학교 2학년 까지 다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동한 곳이 국경연선 지역이었습니다. 중국과 북한과의 국경연선지역 인데요. 두만강 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간 곳은 제가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자랄 때, 어렸을 때는 정상적

인 어린시절을 보내셨나요. 살고 계신 동네의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자라셨나요.

○ 탈북자

네, 그렇게 북한에서의 그저 평범한 생활을 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동네 학교 다니셨죠, 거기서 읽는 거라든지 쓰는 거라든지 수학 이런 거 다 배우셨죠.

○ 탈북자

예, 배웠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때 곱하기 뭐, 이런 것도 배우셨나요.

○ 탈북자

예, 배웠습니다.

○ 마이클 커비

나누기도 배우셨나요, 나눗셈이요.

○ 탈북자

예, 배웠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럼 거기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다 기초적인 교육을 학교에서 배웠나요. 읽기, 수학 같은 기초교육을 근처마을 아이들이 다 배울 수 있었나요.

○ 탈북자

예, 배울 수 있었지만 집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식량난으로 고생한 집들은, 그런 집들 아이들은 학교 대신 산에 가서, 가방 대신 바구니 들고 산에 가서 산나물 뜯고 약초 캐고 풀뿌리 캐고 그러한 일을 하였지요.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자라실 때 혹시 북한에 1990년대 아주 커다란 기아, 대기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렸을 때, 자랄 때 시절이 맞나요.

○ 탈북자

그것이 1993년, '94년 북한의 지금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1994년 7월 8일 그 전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96년도에 학교를 고등 중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 전부터 학교 고등중학교 다닐 때부터 고생을

했지요. 많이 어렵고 식량난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그때 집에서 어느 정도 음식을 먹을 수 있었는지 그 정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 탈북자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북한에는 9, 10월에 감자를 캐니다. 그러면, 그 감자를 깨끗이 캔다고 해도 그 이삭이 남아 있습니다. 땅에 파묻혀 있습니다, 다 캐지 못한. 그런 감자들을 이듬해 봄에 땅이 채 놓지 않았지만 언 땅을 파가면서 그런 감자들을 고릅니다. 그러면 그런 언 감자들을 캐서 가루내서 말려서 가루내서 죽을 쑤어먹고 또 겨울에는 없으면 옥수수 속껍이가 있습니다. 옥수수를 발라먹고 그 안에 자루가 있는데요. 그 자루를 말려서 가루내서 먹고 그리고 콩각지 콩을 다 꺼내고 그 껍질, 그 콩 껍질을 가루내서 먹고 나무 껍질을 발라가지고 그걸 말려서 가루내서 먹고 그랬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그때 충분히 식량이 있었다

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자려고 자리에 누우면 항상 배가 고프거나 그러셨나요.

○ 탈북자

그 당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는다고 해도 배 터질 줄 모르고 계속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아마 너무 배고파서 누워도 잠이 안 왔을 그런 정도였습니다.

○ 마이클 커비

제가 알기로는 김 씨 가족에 대해서 김정일 뉘, 등에 대해서 충성심을 갖도록 배우고 자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탈북자

예, 맞습니다. 그렇게 북한은 세뇌 교육을 누구도 딴 짓을 못하게끔 세뇌 교육을 시키는데요. 김정일의 어린 시절 때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까지 나라를 통치할 때까지의 모든 혁명 활동들을 모두 기록한 교재들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모의 생일은 몰라도 김 씨 가족의 생일은 모르면 사형에 처해야 됐습니다. 그럴 정도였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외면을 해도 김정일 일가에 대

해서는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오늘과 같은 공청회에 나와서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나올 것이라고 상상을 단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 탈북자

저는 이런 자리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렇게 마음을, 북한의 현실을 전 세계에 폭로하고 싶은 마음은 북한에서 감옥생활을 할 때 처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예전부터 있었다면 아마 지금처럼 이미 저의 사실에 대해서 공개가 되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 마이클 커비

그 이야기는 조금 후에 다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떻게 북조선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에, 남한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단계적으로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탈북자

탈북을 하게 된 경위는 저희 아버지가 중국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식량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친척 방문으로 중국에 자주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그때 '98년 1월인데 아버지가 중국으로 들어가셔서 한국의 KBS 라디오를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아버지가 오셔서 저희들한테 밤에 그것도 낮도 아니고 밤에 모여 앉혀 놓고 "우리가 생각했던 한국이 아니었다. 그리고 세계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이 상황하고 엄청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그냥 자본주의에 물 젖은 걸로 알고 아버지한테 좀 안 좋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장군님 버리고 어떻게 가냐."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심각한 상태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의 고집을 꺾고 아버지는 두만강 상류로 건너가게 되셨고, 우리는 두만강 하류로 강을 건너서 중국 쪽의 어느 한 개인집을 지정을 해 놓고 그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틀 후에 약속 시간 후에 가니까 아버지는 이미 중국 공안의 탈북자 색출 작업에 못 이겨서 먼저 주인집이 무섭다고 해서 아버지가 먼저 가시고 아버지 신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3월 달에 헤어진 아버지를 아직까지는 만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잡혀서 거기에서 우리 가족이 엄마하고 저하고 여동생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동생 나이가 9살이었는데요. 끌고 다 같이 연길로 가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서 다시 북송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탈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엄마하고 여동생이 먹을 것이 없다보니까 빵장사 하러 간다하고 중국에서 그때 당시 중국 교회들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때 당시 돈을 줬습니다. 쌀하고 돈을 줬었는데요. 그때 엄마하고 여동생이 그 돈을 챙기러 쌀 가지러 중국 교회에 갔었는데 갔다가 한 달 만에 오셨습니다. 동생을 안 데려 오고 엄마만 오셨는데 후에 또 엄마 데리러 가신다고 또 가셨다가 그 다음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생하고 같이 있다가 북한의 양강도에 보면 대흥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대흥단에 가서 고사리 한 달 동안만 뜯으면 북한 돈으로 만 원을 준다고 해서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인도한 인신매매꾼이었습니다. 북한의 인신매매꾼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뒷집의 언니랑 같이 갔었는데 저와 언니는 그렇게 해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중국에 연영성이라고 있는

데요. 그쪽에 팔려갔었습니다. 팔려가서 잡혀, 북송이 되었는데요. 꼭 1년 만에 북송되었는데,

○ 마이클 커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누구에게 팔려간 건가요. 누가 선생님을 팔았나요. 혹은 선생님을 팔 권리를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 탈북자

저희 아버지를 두만강 상류로 두만강 도강을 도와준 우리 동네 아저씨였습니다. 그 아저씨가 우리하고 저하고 뒷집의 언니랑 같이 고사리 뜯으러 가지 않겠냐, 돈 벌 생각이 없냐 해서 그럼 가겠다, 그래 가지고 저는 9살 된 남동생을 내버려두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이 보니까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때 당시 도착했을 때 중국의 울기강이라고 있습니다. 그 울기강 옆에 비닐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 안에 인신매매꾼 5명이 있었습니다. 남자였고요, 그래서 거기에 한 1주일 있다가 도착해 보니까 그 안에 인신매매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그곳까지 안내했던 브로커 아내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

전이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이곳까지 데려 왔냐” 하니까 “너희 부모도 여기 왔는데 부모 찾아서 돈 벌게 하느라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암튼 저는 이왕 이렇게 온 김에 엄마를 한번 찾아보자 하고 인신매매꾼들이 저희 엄마를 찾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신매매꾼들 말을 끝이 믿었죠. 그런데 잡힐 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장가 못간 중국의 나이 많은 총각들한테 팔 거라는 것은 생각을 못한 거죠. 그렇게 가다가 중국 공안에 걸렸습니다. 중국 공안에 걸려 잡혀서 중국 공안들이 저 사람들이 너희들 팔아먹으려고 했었다 해서 그때 알았었습니다. 그때 같은 버스에 또 2명이 타고 우리 2명해서 총 4명의 탈북 여성들이 붙잡혔습니다, 중국 공안에. 중국 공안 국장이 저희들보고 북한의 현실을 이리저리 물어보면서 같이 가슴 아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아이러니 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조선족이었는데 이렇게 우리의 입장을 이해를 해서 가슴 아파한다는 것에 좀 신기하긴 했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밑에 부하가 우리를 변방대에 데려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변방대 끌려가는가 보다 했

는데 정문에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자기 뒤통수 내버려두고 왔다고 가지러 들어간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30분 되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혹시 이거 뛰라는 거 아니냐” 하고 우리가 4명 다 뛰었습니다. 이제 막 뛰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창문에서 우리 보다가라고, 이제 빨리 가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인신매매꾼들이 그때는 살벌하게 있었습니다, 거리에. 조금 복장이 북한 차림이 다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인신매매꾼들이 다가와서 저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고향이 어디냐 그것도 중국말로. 북한에서 온 우리가 중국말을 할 리가 없죠. 하나도 모르고, 얼버무리면 혹시 북한에서 왔냐, 이렇게 여쭙보고 맞다고 그러면 우리를 데리고 옷이라도 사주겠다고하면서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붙잡히게 되었고 인신매매꾼에 걸리게 되었고 인신매매꾼에 의해서 연영성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중국 돈 3만, 2만 5천 그 가격에 팔렸습니다. 그때 당시 저의 남편이 될,

○ 마이클 커비

이것이 연영성에 있었던 일입니까, 아니면 연영성이라는 사람에 팔려간 것입니까. 이게 도시의 이름입니까, 팔려가셨다고 하는데 사람 이름입니까, 아니면 어떤 장소의 이름입니까.

○ 탈북자

장소의 이름입니다. 예, 지역 이름입니다.

○ 마이클 커비

어떻게 거기로 팔려가게 되었습니까, 연영성으로 팔려갔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팔려갔나요, 누가 샀습니까, 산 사람이 누군가요.

○ 탈북자

어떤 할머니가 샀습니다. 저를 인신 매매꾼들한테서 사고 그 할머니는 혼자 살았는데요. 아들이 일본에 돈 벌려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벌러 갔다가 이제 몇 달 안 있으면 오니까 미리 사 놓는다고 저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랑 몇 달 동안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안의 파출소 소장이 와서 저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살기가 편한가 해서 편하다 북한보다 낫다, 그러니까 호적을 올려주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상정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올려주겠다는 소리에 신상정보를 다 말하고 신원 조회 하는 것을 다 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달 좀 안 돼서 와 가지고 저희들을 한명한명 다 붙잡아 갔습니다. 그 지역에 그때 당시 붙잡힌 인원만 해도 60명이었습니다, 탈북 여성만. 그래서 연영성 감옥에 60명이 다 붙잡혔고요. 그렇게 거기에서 한 달간, 두 달 가까이 이렇게 있다가 중국의 단둥으로 단둥변방대를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북송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단둥변방대까지 갈 때 9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갔었는데요. 그때 9개월 된 임산부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달리다 보니까 임산부가 변방대에 와서 소변을 보는 도중에 아기 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 아기 손이 먼저 나오다 보니까 아기는 이미 잘못되고 그 산모만 살아서 북한으로 북송 되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그 산모한테 계란 그리고 분유 산모를 먹으라고 각종의 영양식들을 중국 병원에서 보내줬는데 그 영양식들을 보위부에서 다 빼었습니다. 빼고 우리가 조금 잘

못하면 앉았다 일어났다 백번을 했었는데 그 산모도 똑같이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위부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들 여성이라는 감각을 잃어, 존재를 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들어가자마자 옷을 다 벗기고 돈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느라고 자궁 검사도 다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도 하고 팔을 벌리고 서고 있게 하고 돈을 감춰오는 것이 머리에 감춰서 머리를 묶어서 온다고 해서 머릿속을 다 뒤집어 보였습니다.

○ 마이클 커비

누가 이런 수색을 했습니까, 누가 몸 수색을 했습니까.

○ 탈북자

북한 보위부에서 했습니다.

○ 마이클 커비

남성이었습니까, 여성이었습니까.

○ 탈북자

남성이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모두 남성이었습니까, 아니면 여성도

있었습니까.

○ 탈북자

온성 보위부에 있을 때는 여성이 없었습니다. 아, 온성이 아니라 신의주였습니다. 신의주 보위부였습니다.

○ 마이클 커비

왜 몸수색을 했나요. 뭘 숨겨가지고 와서 수색을 한 건가요, 아니면 임신을 했기 때문에 알아보려고 했는지 아니면 모욕을 주려고 몸을 수색한 것입니까.

○ 탈북자

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느라고 감춰 들어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수색을 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래서 그때 돈 숨기고 계셨어요.

○ 탈북자

저는 돈을 옷에다 숨기고 왔는데 그때 당시 봄이다 보니까 조금 두꺼운 옷을 입고 왔는데 옷하고 옷이 하나라면 그 옷이 밖이 있고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다가 돈을 넣었는데 다행히

들키지 않고 무사히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보위부에서 한 20일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 다. 조사를 받고 그때 당시 참 저는 보위부라는 데를 처음 들어가 봤고 보위부가 이렇게 악한 줄 몰랐 습니다. 그때 조사를 할 때 어떤 질문을 했냐면 우리가 먼저 조사한 사람이 조사를 받으러 나갔던 사람한테 들어오면 물어봤었습니다. 어떤 조사를 받냐고 어떻게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어떻게 자냐, 너는 중국에 가서 어떻게 잤냐, 그걸 물어보더라고 합니 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웃는데 보위부 사람들이 막 왔었습니다, 감방에. 우리 호실에 들어오면서 누가 방금 웃었냐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 안 내게 웃었는데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감시 카메라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는데 한 여자만이 계속 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니 그만 웃으라고 지금도 막 화난 상태로 지금 들어왔다고 하니까 계속 웃는 거예요. 그래서 보위 부 사람이 풍둥이를 들고 이 여성을 엄 청 많이 때렸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웃 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발로차고 막 코 에서 피나오고 입에서 피나오고 귀에서

피나올 정도로 때렸는데도 막 웃었습니 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지쳐서 보위 부 사람이 지쳐서 나간 다음에 울면서 우리가 왜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되냐 면서 그냥 쓰러졌는데 어디론가 신고 나갔는데 그 후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래서 그렇게 보위부 안에서 이것보다 더, 이런저런 얘기들도 오고했지만 얘기 들 배고프다고 하는데도 밥도 안 주고 그때 복한이 어렵다 보니까 죄인들한테 까지 돌아갈 밥이 없으니 하루에 두 끼 를 주었습니다. 오전에 한 끼 오후에 저녁에 한 끼 줬는데요. 옥수수 알을 한 30알, 50알 그 정도, 많아야 100알 정도 였는데요. 그걸 삶아서 줬습니다. 반찬 은 무 잎사귀인데요. 무 잎사귀를 그냥 소금만 쳐서 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신 의주 단련대에 있었습니다. 신의주 단련 대에서 얼마간 있다가 함경북도, 제가 사는 곳이 함경북도다 보니까 함경북도 집결소에 왔습니다. 이관되어 왔죠. 그 집결소에서 한 달 동안 있었는데 저도 그때 머리를 많이 맞았습니다. 거기에서 는 선생들보다 안전원들보다 같은 죄수 가 더 심했습니다. 반장이라고 하는데 요. 반장들이 더 심하게, 반장들이 모두 가 돈 검열을 합니다. 돈이 조금이라도 보일 기색이 나면 때리고 그랬고요. 대

부분 먹고 왔습니다. 저도 돈을 먹었었습니다. 돈을 먹고 나왔었는데 돈이 변으로 나간다고 반장들이 화장실마다 지켜 셧습니다. 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래서 변을 보면 무조건 나무 꼬챙이로 변을 막 쭈셔서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중국에서 임신되어 가지고 오는 탈북 여성들 무조건 앉았다 일어났다 그걸 보고 북한에서는 ‘뽀뿌’ 라고 하는데요. 그걸 시키지 않으면 시멘트 마대, 벽돌을 등에다 지고 계속 뛰게 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러면 그날 저녁에 무조건 낙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너무 지금도 가슴 아픈 것은 9개월 조금 더 된 임산부가 왔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대부분 낙태되는 아이들이 다 죽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응애응애 하고서 나오는데 우리는 너무 신기했어요. 아이가 태어난 모습을 처음 보니까 그래서 막 너무 행복했었고 그 순간은 아무튼 그랬었는데 갑자기 발소리가 들리더니 안전원이 들어왔습니다. 선생이라고 불리는 안전원이 들어와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릇에다가 물을 떠놓고 씻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다 물 떠놓은 그 그릇에다 그 물에다가 아이를 뒤집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엄마가 잘못했다고 내가 불임이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겨우 난 아이라고, 이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원은 계속 때리면서 그 아이를 뒤집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한쪽에서 금방 태어났으니까 계속 울고 했는데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그 물 그릇에다가 뒤집어 놓으니까 아기가 막 울다가 울음이 딱 그치고 물방울이 올라오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아이를 받은 할머니가 예전하고 마찬가지로 소리 없이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집결소에서... 그렇게 하고 제가,

○ 마이클 커비

왜 그 물에 얹어놓았나요, 왜 계속 저항을 안 했을까요. 그 아기 용서해 달라고 엄마가 빌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왜 금방 그 저항을 멈췄어요, 더 싸우지 않고요, 왜 아기를 왜 물에 얹어 놓게 놔 뒀나요.

○ 탈북자

저항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은 김정일 말고 그 어떤 권력자도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해야만 했었을 겁니다. 그 상황을 제가 다 알기 쉽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사람의 아기를 물에다 띄어 놓으라고 하는 그 권력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무서운 정적이 들었고요. 그 아기 엄마도 자기 아기를 뒤집어 놓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침 4시에 기상하고 저녁 10시에 들어와서는 김정일, 김일성에 관한 혁명 역사에 관한 공부를 계속하고 잘 못하면 거기서 밤을 새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보내고 제가 가야 할 군 안전부에 갔습니다. 군 안전부에서 데리러 와서 도착을 하니깐 거기에 1년 전에 헤어져 있던 엄마가 붙잡혀 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헤어졌던 엄마하고 1년 만에 군 안전부 구류장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로 말하면 구치소지요. 그래서 엄마와 저는 붙들고 한참을 울었고 제가 엄마한테 동생은 어디 갔냐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쌀 배낭을 둘러메고 오는데 갑자기 밤이다 보니까 갑자기 풀숲에서 인신매매꾼들이 나타나서 엄마하고 여동생을 각기각기 납치를 해서 각기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팔리고 여동생도 팔렸습니

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동생하고 엄마가 서로 생사를 모르고 엄마는 붙잡혀오고 동생이 팔릴 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달 반 정도 있다가 엄마하고 제가 또 거기 옆에 있던 탈북자 4명이 증산 11호 교화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재판도 없었고요. 손도장 10개를 찍고 검은손도장 10개를 찍고 교화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이죠. 그래서 감옥에 도착을 했는데 엄마는 골수염이다 보니까 입소가 불가능했습니다. 신체검사에서 입소가 떨어졌고요. 저 혼자 입소가 가능해서 엄마하고 저하고 또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교화소 생활, 감옥생활 시작하게 되었고요.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아닌 짐승인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눈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으로 보였고요. 그 사람들 옷 단추에 개구리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개구리는 비닐봉지에 개구리를 넣고 개구리 껍질을 발라서 거기에 소금을 쳐서 절인 개구리를 먹더라고요. 그리고 날아다니는 메뚜기를 산채로 잡아서 먹고, 바닥에 널려져 있는 풀들을 집어 먹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했고요. 그때가 입소한 날짜가 1999년 7월 27일이었습니다. 그때

제 여동생이랑 나이가 같은 영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김영이인데요. 저는 제 동생이랑 나이가 같으니까 친동생처럼 생각했었습니다. 1반부터 3반까지, 7반까지 있었는데 1반부터 3반까지는 탈북한 사람들이 제일 힘든 노동을 시킨다고 1반부터 3반까지 논밭을 가꾸게 하고요. 4반부터 7반까지는 그냥 산밭 옥수수 심고 콩 심고 이런 밭을 가꾸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이다 보니까 김 메기를 하느라고 배 밭에 풀 뜯으러 갔었습니다. 풀 뽑으러, 그래서 항상 영이하고 저는 붙어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옆에서. 그런데 여기로 말하면 냉이풀이 있었는데요. 그 냉이풀이 봄에 먹는데 배고프다 보니까 여름에 다 썩썩한 그런 냉이풀을 뜯어먹었어요. 그래서 밭고랑 저기 맞은편에 있는데 이걸 빨리 하고 가서 그 풀을 뜯어먹자 해서 영이하고 저하고 빨리 가서 다 하고 논두렁에 손을 댔는데 어느새 선생이라는 안전원이 와서 그 선생이 저희 손들을 구둑발로 밟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오라고 해 가지고 저기 앉으라고 해서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교화소 안에서는 절대로 일하는 도중에 그 어떤 선생이 하라 하는 것 외에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런데 저희 들은 이제 그 풀을 뜯어먹으려고 손을 뻗었으니까 큰 죄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이 의자에 앉아서 저희들을 풀밭에 무릎 꿇고 앉혀놓고 웃으면서 반장보고 풀을 흙째로 잔뿌리 하나 상하지 않게 흙째로 파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장이 두 포기를 퍼와, 그 흙째로 똑같이 호미로 파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놓더니 이걸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그 흙을,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흙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보고 풀을 먹으라고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한번만 용서해 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계속 때렸습니다. 그래서 영이와 저는 그 풀을 먹었습니다. 교화소 안에서는 설사를 하면 무조건 설사로 죽습니다. 그런데 영이가 그 설사에 걸렸습니다. 그 풀을 뜯어먹고. 그래서 저도 먹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흙을 먹는다는 게 목구멍에 넘어 안 갔었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영이가 설사를 많이 했고 그 다음 해에 2월에,

○ 마이클 커비

친척은 아니었죠.

○ 탈북자

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가 설사를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거기에서 설사에 약을 주는 것이 옥수수를 불에 많이 태워서 그것을 가루내서 먹으면 설사를 멎는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설사가 멎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교화소에서는 한, 1주일에 20명씩 죽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영이가 빨리 죽을까 봐 두려워했고요, 그 영이의 부모가 여기 남한의 제주도가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이의 부모가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 영이하고 같이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한국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붙잡혔어요. 붙잡히고 북송돼서 영이가 보는 앞에서 부모를 사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애는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제가 항상 너는 꼭 살아남아서 부모가 묻히진 않았지만 부모가 태어난 고향 제주도에 꼭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 마이클 커비

부모님이 영이 앞에서 공개 처형된 건 어떻게 아시나요, 보셨나요.

○ 탈북자

영이가 말해 주어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영이하고 평상시에 꼭 제주도 가야 한다고 그래서 저랑 같이 가고 항상 약속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개가 어느새 갑자기 일을 하다가도 쓰러지고, 쓰러지고 설사 때문에 아예 누웠습니다. 드러눕고 앓고 밥 한 알도 못 먹고 그러다가 애가 어느새 너무 야위었고 일어나서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그냥 돌아누울 수 없는 상황에 갔어요. 거의 죽을 직전에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가 하는 말이 “언니 나 죽기 싫은데 아무래도 내가 제주도에 먼저 가 있겠다고. 언니 꼭 살아서 제주도에 오라고 내가 제주도에서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저는 약 한 첩 개한테 지어주지 못하고 개는 눈을 못 감은 채 눈 뜨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통곡했지요. 폐니실린 병에 이름과 나이, 생년월일, 태어난 곳을 종이에 쓰고 목에다 걸어주었습니다. 비닐로 개를 감고 비닐로 감싸고 새끼줄로 머리를 묶고 허리 묶고 다리 묶고 이것이 북한 교화소의 관입

니다. 그렇게 해서 그 창고 안에 넣고 20명이 돼서 한 달구지 차서 그 교화소 안에 꽃동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꽃동산에 신고 갔습니다. 신고 가서 한 5구덩이 팔 만큼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20명 넣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볼록 나오면 그것을 위에서 여럿이서 발로 밟았습니다. 그러면 좀 들어가고 그렇게 영이를 묶어... 겨울이다 보니까,

○ 마이클 커비

그 흙을 먹게 한 흙과 풀을 먹게 한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름은 혹시 알고 있나요.

○ 탈북자

우리는 선생의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2반이었고 2반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선생이라는 것은 북한은 거의 다 안전원이죠. 지금은 북한의 안전원이 이제 보안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아무튼 예... 그 겨울이다 보니까 흙이 없고 흙덩어리가 나옵니다, 땅을 파면. 그러면 그 볼록 나온 시체에 그냥 흙덩어리를 딱 이렇게 툭툭 붙여놓으면 이것이 묘지였습니다. 1주일 있다가 다시 죽은 사람들 시체를 가지고 묻으러 가보니까 거기에 시체가 하나도 없었습

니다. 묘지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올라가면서부터 이상하다 했는데 그 꽃동산을 지키는 할아버지가 개 5마리 키우는데 그 개들이 그 시체를 다 뜯어먹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개들이 사람의 손을 물고 다니고 머리며 발이며 굴러다녔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증산 11호 교화소 실체입니다. 거기서 얼마 며칠 못가서 김정일의 생일을 맞으면서 감옥에, 교화소에 대사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을 안 채우고 8개월 만에 교화소에서 나가게 되었는데요. 중요한 건 영이가 그 며칠을 못 참아서 죽었고요. 대사령 받고 나서부터 북한에는 기차가 전기로 가동하니까 기차가 자주 연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사령 받은 날에 나갔어야 되는데 그 기차를 기다리다 나오니까 청진 쪽으로 가는 기차가 오지 않아서 거기서 한 20일 동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차를 기다리다가 대사령 받고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차가 와서 나갈 때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 서로 부축이며 업고 부축이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나간다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열차 안에서 한 명 두 명 죽어갔습니다. 절대로 감옥에 안 들어오겠다고 이제부

터 새 삶을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설사로 인해서 대사령 받고 교화소 밖으로 나왔는데 한 명 두 명 죽어가는 것이 참 안타깝고 그 죽은 사람들을 열차가 서는 역전 바닥에 한 명 한 명 뉘어 놓을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퇴소를 했었고 청진장마당에서 청진시장에서 제 동생이 꽃제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동생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꽃제비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서 한 2, 3일 동안 찾았습니다. 동생이 청진시 병원에 동상으로 입원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진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동생이 거의 죽기 직전이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생을 업고 나와서 동생과 함께 그때부터 제가 소속된 직장에 가서 집을 자그마한 집을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쌀이 없고 소금이 없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소금을 못 먹으니까 사람이 많이 붓더라고요. 그리고 감옥생활에서 너무 안 좋은 음식을 먹어서 나오자마자 제 얼굴이 엄청 빵처럼 이렇게 부었었습니다. 제가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회충이 많아서 제가 회충 배를 앓아가지고 죽기 직전에 약을 먹었는데 그때 엄청난 회충을 보게 되었고요. 그때 또다시 제가 아, 내

가 죽을 고비를 또 한 번 넘겼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 어떤 사람이 저희 집에 와서 “엄마가 지금 두만강 쪽에서 기다린다, 너네를 돈을 주겠다고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보고 잠깐 있으라 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두만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없고 이 사람이 또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제가 혼자 산다는 말을 듣고 저를 인신매매하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인신매매는 당하지 않았고요. 제가 그때 엄마랑 헤어질 때 엄마가 중국에서 살던 전화번호를 제가 기억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전화를 해보니 엄마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엄마하고 연결이 되었고 엄마하고 통화를 하였고 엄마하고 같은 그 마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살던 도중에 다른 사람의 고발로 인해서 제가 중국 공안에 잡혀서 복송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복송이죠. 네 번째 복송되었고 제가 온성으로 중국 쪽에는 도문이고 북한 쪽에는 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성변방대를 통해서 북한 보위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변방대에서 신의주 변방대보다 훨씬 더 강하게 조사를 하였고 고문도 했었습니

다. 고문보다는 일단 말을 안 듣고 조금 거부반응이 있다 했을 경우에는 북한 보위부 못지않게 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제가 들어가자마자 북한 보위부와 똑같이 옷을 몽땅 벗기고 돈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옷을 벗어라 했을 때 제대로 안 벗거나 거기서 왜 벗냐고 항의를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곤봉을 다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그 곤봉으로 무조건 때렸습니다. 저도 많이 맞았고요. 그래서 아무리 거기서 항의를 해 봤자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아,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북한하고 똑같이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우리 탈북 여성들 및 남성들도 붙잡혔는데요. 수감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도망치려다가 붙잡힌 남성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아주 피투성이 돼서 그냥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복송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좀 몇 명하고 같이 복송 되었었습니다. 복송 되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온성 보위부였고요. 온성 보위부에서는 신의주 보위부와 달리 옥수수 국수 죽을 주었습니다. 그 국수 죽을 매끼 먹으면서 호실이 딱 차니까 감옥 안이 딱 차니까

북도에 사람들을 죽 앓혀 놓았습니다. 북도에 저쪽 북도에서 제일 끝에 보면 화장실인데요, 그 화장실에 항상 마스크를 쓴 보위부 지도원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대기로 항상 변을 쭈셔서 돈이 있는지를 확인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저도 좀 거짓말을 한다고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첫째로 교회를 갔었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를 갔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교회를 다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안 갔다고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거짓말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남조선 사람하고 접촉을 했었냐, 만났냐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때 당시에 남한 사람을 한번은 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저도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고 많이 맞았고요. 저는 끝까지 거기서 만약에 교회를 갔다 그리고 한국 사람을 만났다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저는 사형 아니면 정치범관리소 가야 했습니다. 관리소라는 게 여기에서 흔히 말하는 수용소를 말합니다. 수용소라고 하면 북한사람들 모릅니다. 관리소라고 해야 정치범 수용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부인을 했고요. 그래서 겨

우 살아남아서 또, 또 집결소인 청진 집결소에 갇혔습니다. 예전 '98년도에 청진 집결소에 갇을 당시하고 2002년도에 제가 붙잡혀 나갔었는데 그때 당시 집결소하고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들리는 말에 의하면 김정일이 아마 이런 유엔에서 조사하는 북한 인권 이런 것 관련해서 아마 말을 들은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탈북자들을 엄청 강하게 고문을 하거나 아니면 집결소 안의 내부가 위생 부분이 낙후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고 거기 개조할 것을 명령을 하더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집결소가 깨끗해졌더라고요, 조금은. 그러나 집결소 선생들이라고 하는 안전원들의 고문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 얼마 안 있다가 다시 군 안전부로 왔었습니다. 제가 그때 몰랐었는데 그때 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임신이면 예전에 '99년도에 북한 청진도 집결소에서 집행됐던 끔찍한 일들하고 저도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냥 거기서 낙태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낙태라는 게 여기서는 주사를 맞고,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마취도

안하고 그냥 책상 위에 눕혀 놓고 바로 수술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혈이 엄청 심했고요. 그래서 수술하자마자 저는 북한의 함흥 55호 교화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또 역시 재판이 없었습니다. 그때 출혈이 엄청 심했고 일어날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저를 담당했던 보안원이 제가 그때 붙잡혀 갇을 때 안전원이라는 말을 안 쓰고 보안원이라고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담당했던 보안원이 보안서장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책임을 지겠으니까 저 아이를 그냥 내놓자, 그때 동생이 군 고아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도 있는데 이제 다시 탈북을 하겠냐” 그러면서 “내가 책임지겠으니까 저 아이를 지금 출혈하고 많이 아픈데 그냥 내놓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제가 55호 교화소에 가지 않고 극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하고 좀 살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무조건 이번에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내 자유가 묻히고 내 자유뿐만 아니라 내 동생의 자유, 전 북한 주민들의 자유가 그냥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묻히는 것이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북한 인권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나가야 된다고 동생을, 죽을 각오를 하고 동생을 남겨두고 동생한테는 나가서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는 다시 그 중국 땅에 가서 엄마를 찾아서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3월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고요. 제가 입국할 때 단동으로 입국을 했었습니다. 단동으로 입국을 하려고 위조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하다가 아, 제일 처음에 대련으로, 중국 대련항으로 가려다가 제가 붙잡혔습니다. 여권 사진이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서 5시간 동안 심문을 받았 습니다. 네가 북한 사람 아니냐, 그래도 저는 절대로 북한사람이 아니다, 중국 조선족이었는데 한국으로 시집갔었다, 그래서 중국에는 놀러왔었다, 그렇게 진술을 했었는데 계속,

○ 마이클 커비

얼마나 심문을 했나요.

○ 탈북자

5시간 동안 심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도 제가 말을 안 하니까 한국에 있는 중국대사관 사람이랑

통화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 중국말로 심문을 받았었는데 역시 영사관에 있는 사람도 중국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인천항에 내려서 바로 지하철이 있냐, 한국에서 사과 한 알이 얼마씩 하냐, 쌀을 kg로 파냐 아니면 자루로 파냐, 별것들을 다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행히도 중국에 있을 때 한국 위성방송을 봤기 때문에 TV를 이미 한국 꺼 봤기 때문에 제대로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거기서 나왔고 한 달 만에 다시 여권을 갱신을 해서 중국 단동으로 한국에 무사히 오게 되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단동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 탈북자

단동에서부터 한국까지는 배로 9시간입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대략, 그러니까 이게 언제 적 이죠, 그러니까.

○ 탈북자

2007년도 3월이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네 번 탈출 시도를 한 거네요 그렇죠, 북한에서.

○ 탈북자

예, 네 번 탈출하고 세 번 복송 당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마지막으로 탈출한 이후에 그래서 한국 여권을 얻어서 2007년도에 한국에 오시고 난 후에 다시 북한에 돌아간 적이 있나요.

○ 탈북자

아니요, 없습니다.

○ 마이클 커비

북한에 다시 돌아가고 싶으실 것 같나요.

○ 탈북자

제가 지금 아이가 둘입니다. 남편이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가족이 없고, 그 후에 엄마도 오고 여동생도 찾아서 오

고 남동생도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족이 없다면 제가 북한으로 아마 갈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중국에 와서 제가 먼저 한국으로 와서 엄마하고 제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딸의 출생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렵니다. 그런 다음에 2010년도 봄에 중국에서 전화 한 통이 왔었습니다. 남동생 전화였습니다. 제가 이미 전에 아는 저희 동네에 온 사람한테 저의 연락처를 보냈고요. 그런데 남동생이 중국으로 친구와 함께 탈출을 해서 나 한국으로 가고 싶다 이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을 데리고 왔고 엄마하고 남동생은 11년 만에 그렇게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2011년도 8월에 국정원에서 전화 한 통 왔었습니다. 제 여동생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믿음은 이렇습니다, 팔려가서 지금껏 연락이 없던 동생이 13년 만에 한국으로 어떻게 돼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저하고 여동생이 13년에 만나서 지금 같이 살고 있고요. 17살에 팔려간 것이 30살에 한국에 입국을 하고 가족들하고 만났고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또 이젠 새로운 정식으로 결혼식을,

○ 마이클 커비

그럼 어머니도 계시고요, 남동생도 있고요, 지금 딸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가족이 있는데 북한에 가고 싶으실까요.

○ 탈북자

아, 제가요. 제가 북한에 가고 싶나고요.

○ 마이클 커비

예.

○ 탈북자

저의 만약에 진정한 사명감이라면 가죠. 그렇지만 지금 생각으로서는 제가 어떻게 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2008년도에 탈북자 구출로 인해서 중국으로 2008년도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탈북자 구출 때문에 들어갔다가 일단은 탈북자 몇 명이 하고 나왔는데 저를 도와주셨던 중국 조선족이 중국 국가안전국에 납치되었더라고요. 저를 다시 중국으로 나오라고 전화를 하라고 그래서 나는 전화번호 모른다,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저한테 컴퓨터 메신저로 전화하면서 주의하라고, 그 사람이 정치적 망명을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제가 지금 현재는 중국도 못 나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암암리에 지금 북한으로 많은 물건들을 보내고 또 북한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마이클 커비

이것이 바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감인가요.

○ 탈북자

앞으로는 좀 더 해야 되겠죠, 앞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글썄요, 사명감이 저한테는, 너무도 각종 사명감이 다 있는데요.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이 자리에 서고 있는 것조차도 참 부끄럽고 그 죽는 사람들을, 제 살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손톱만큼 도움을 못 준 것이 지금도 가슴에서 내려 앉아 있고 항상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야 할 이유가 또 이렇게 한국으로 무조건 왔어야 하는 이유가 뭐, 다른 것도 있고 저의 자유 때문이든 온 것도 있겠지만 저는 죽은 사람들 속의 대표이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했었고 강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전 죽은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도 또 그 사람들의 몫을 제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까지 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파할 자격도 없고 죽을 자격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 마이클 커비

선생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한국에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미래에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 탈북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작가하고 기자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제 펜클럽 망명 북한 펜 센터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책 한권도 썼고요. 작가로서는 많이 부족한 하지만 일단은 작가의 꿈을 이루었고요. 제가 지금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서로의 정치적인 생각은 서로 다르지만 일단 저는 정치부 기자되는 것이 목표였고 이렇게 목표를 세운 이유는 지금 많이 묻혀있습니다. 중국에 팔려간 탈북 여성들의 끔찍한 그런 사례, 그런 부분들은 누구 하나 역사책에 기록해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비밀리에 진행이 되고 아무튼... 예, 그리고 통일되어서도 제가 통일된

후 북한 주민들한테 그 무언가를 알 수 없는 자유, 알 수 없는 삶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좋은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조금 미안하고 부끄럽기는 하지만 많이 배우고 그 길을 위하여 노력을 할 뿐입니다. 바람이 있다면 우리 남과 북이 하루빨리 통일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 마이클 커비

남한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탈북자

제가 지금 안보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학생들도 그렇고 대학생들도 그렇고 남한의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한 의식, 안보 의식에 대해서 많이 미약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책이나 정부에 관련해서 교육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앞으로 정부에서 안보에 관한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중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또 북한의 남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아

닌 북한 정부, 김정은 정권에 겨냥을 하고 안보의식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 마이클 커비

더 추가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계신가요, 오늘 증언하신 말씀 외에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 탈북자

제가 막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다 얘기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장애 4급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병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조금... 머리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예, 병명에 대해서는 조금 생략을 하렵니다. 제가 지금 5년 동안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 약을 얼마 동안이라도 안 먹으면 저는 죽습니다. 그냥 포기하려고도 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 김정일은 나를 북한에서만 아니라 한국에 와서 살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고 버렸구나.' 이런 생각에 많은 인생을 버리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드시피 저는 죽은 사람들을 대표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구 할 수가 없었습니다. 탈북자들은 북한을 버린 것이 아니

라 김정일 정권이 저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을, 고향을 버린 것이 아니라 김 씨 가족에게 북한을, 우리나라 절반 땅을 빼앗겼습니다. 제가 글썩요, 언제 통일될지는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될 거라고 항상 믿어왔습니다.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사람이 죽어서 기뻐해 보기는 처음이었지만 눈물이 그렇게 또 나온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서, 내 고향 수령이라서 눈물 흘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 놓고 너무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죽은 것이 억울해서 제가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얘기를 해 드리자면 진짜 백날이든 이백 날이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짧게 얘기 한다면 빼앗긴 북한, 빼앗긴 내 나라 땅, 내 나라 절반 땅 하루빨리 되찾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이클 커비

말씀하시는 여정 동안 엄청난 일들을 겪으셨는데 보편적인 인권이 유린당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중국이라든지 북한에서요. 선생님이 보편적인 인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나요.

○ 탈북자

제가 중국을 탈출하기 전까지는 인권이 뭔지, 자유가 뭔지 몰랐습니다. 중국에 나와서의 그 세계는 우리가 말로만 듣고 상상만 했던 천국이었습니다. 그때 조선족들이 하는 말이 6.25전쟁이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다고 들었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못살던 남한이 엄청나게 잘 사는 것을 TV로 보았을 때 자유가 뭔지, 진정한 인권이 뭔지 알았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 얘기 중에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 탈북자

어... 머리가 하얘집니다. 더 드릴 말씀이... 글썄요, 말이 이것저것 많은 것 같은데 또 사적인 이야기라 좀 생략하고 저쪽 북한에서도 실질 내부 속에는 지금 현재 김정일 정권을 반대해서 많이 싸우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마이클 커비

오늘 긴 말씀해 주셨습시다만, 선생님의 탈북 과정을 세세히 말씀해 주셨

는데 저희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오늘 꼭 기억해 두고 해야 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탈북자

북한 전체 주민들의 인권도 중요하겠지만 탈북자들의 인권이 더 열악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수용소, 북한의 수용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몽땅 현실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탈북자들의 강제북송 중지입니다. 몇 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떠들었지만 중국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탈북자 강제북송 중지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중지가 제일 시급한 일이고 정말 그 사람들은 북송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고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 마이클 커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제 동료들이 더 질문하실 게 있는지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냐 비르세코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북송

당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경험들을 했는지 북한 일반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까,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당했는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요.

○ 탈북자

제가 북송당해서 감옥에서 나왔는데 저의 친구들이 저한테 들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옥에서 나올 때 절대로 비밀로 한다는 것을 손도장 찍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기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같은 교화소 출신, 그러니까 저는 증산에서 나왔지만 또 다른 분은 다른 교화, 감옥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감옥을 갔다 왔던 사람들끼리는 그냥 수군거리며 얘기할 수는 있었지만 제가 북한에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하고 제가 북송당해서 감옥을 갔다 온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배신이기 때문에 저하고 말을 섞으려고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항상 북송당해서도 외롭게 혼자 있어야 했었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몇몇은 그래도 저한테 얼굴이 일주일 동안 얼굴이 부으니까 소금도 가져다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할 기회가 그다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마르주끼 다루즈만

매번 탈출 시도를 하신 거잖아요, 보통 보면 누군가가 북한에서 탈출을 했다가 북송이 되면 굉장히 엄격한 수용소나 관리소 등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네 번 탈출을 하셨고, 그렇게 네 번 탈출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탈출을 하실 수 있었는지요. 엄격한 감시 이런 거 받지 않았나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탈출이라는 게 북한에서는 아주 엄격한 법을 위반한 건데, 큰 위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치수용소, 어떻게 정치범수용소에도 안 들어가고 어떻게 다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지요.

○ 탈북자

제가 만약 한국으로 오려고 시도를 했었다면 정치범수용소 가겠죠. 그런데 제가 또 남한 사람들 만나거나 접촉을 했거나 또 남한의 국정원 사람들과 접촉을 했다거나 교회에 갔다거나 하나님을 믿었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정치범수용소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증언을 했었고 제일 처음 탈북을 했을 때는 군인한테, 그때는 식량이 중요했었기 때문에 군인들도 배고파서 우리가 돼지고기 1kg하고 빵 10개, 그리고 술 한 병이면 강을 건너게 줬습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저하고 여동생, 남동생이 탈북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신매매꾼을 통해서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역시도 인신매매꾼에 의해서 엄마가 강 옆에 있다고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탈북은 제가 세 번째로 북송 당했을 때 보니까 제일 처음에 저랑 같이 두 번째 탈북 때, 저랑 같이 고사리 뜯으러 인신매매꾼한테 걸려서 가던 그 언니가 붙잡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랑 같이 인신매매꾼하고 같이 가던 그 길로 한번 가보자 해서 그것이 탈출이 가능했었습니다. 감시라는 것은 이제 강연가도 항상 어떻게 그렇게 매번 탈출할 수 있었냐 하는데요. 일단은 한번 붙잡혀 가면 몇 달 동안은 제주변에 감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서는 그렇게 감시가 심하지는 않았습니 다. 아, 이제는 애가 정착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인지 몇 달 후에는 조금 더 느슨해서 또 남동생을 남

겨두고 가기 때문에 감시가 심하지는 않았습니 다. 그래서 어디 장보러 간다하고 나와서 탈출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 마르주끼 다루즈만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번째 탈출했을 때 그때는 인신매매범 없이 탈출한 것이죠.

○ 탈북자

예.

○ 마이클 커비

알고 계신 바로는 북한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여성 인신매매가 심각한가요 알고 계시는 여성들 중에서 인신매매된 여성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그런데 이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인신매매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성 매매 등을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자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인신매매가 되는 것과 자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는 건 차이가 있는데 이 여성들은 어떤 경우라고 보시는지요.

○ 탈북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제로 여성들이 인신매매 당하는 거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중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신매매 당해야 살 수 있다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부러 인신매매 당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심정은 잘 모르겠지만 일부러 당하는 이유는 더 일을 해서 돈을 벌자고 해도 그 돈을 안 줍니다, 중국 사람들이.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일을 해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면 네가 복송 당하겠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일만 하겠냐 밥 먹으면서 공짜로 밥 먹여줄 테니까 일만 하겠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탈북자들은 거의 복송 안당하고 그냥 돈 안 받고 여기서 밥만 먹으면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그 하대가 심합니다. 언제 어떻게 붙잡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신매매 당해서, 일단은 인신매매라는 용어가 조금 그렇게 부적절한데요. 일단은 결혼을 한다고 하면 그 남편 될 사람이 자기가 집 사람이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하기 때문에 아마 일부러 인신매매 당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강제로 인신매매 당하는 것은 저도 강제로 당해도 봤지만 자유, 인권 이런 건 그 자리에서는 볼 수도 없고 남자들

죽 세워놓고 아니면 남자 한명 한명이 들어와서 여자 여러 명 놓고 여기 중에서 골라라, 이렇게. 그리고 애 나이는 몇 살이다, 예 나이는 몇 살이다, 이렇게 인물보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가격을 정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막 좀 싸게 해달라, 이렇게 가격 흥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신매매 당하는 것이.

○ 마이클 커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증언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저희가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인권을 유린당한 사례들을 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유엔에 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증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시기 전에 저희 사무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셔서 선생님의 본명이 서면으로 남는 것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본명을 첨가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

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 사람들과 말씀을 하셔서 이점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꼭 말씀을 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를 떠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북자**

감사합니다.

○ **마이클 커비**

이것으로 오늘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공청회를 재개할 것이고요. 8월 21일 오전에 저희가 공청회를 9시에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1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점심이후 2시 반에 다시 시작을 해서 6시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할 일이 아주 많은데요. 오늘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잘 지켜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한 방법으로 내일도 똑같이 증언을 듣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정보를 얻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